

조선업 자구계획 올해안 80% 달성

산업관계장관회의

자산매각 4조원대 자구 이행
해운업 6조5000억 금융지원
공급과잉 철강·석화 선제 조치
시장친화 구조조정안 3월 마련

정부는 올해 고강도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조선업종에 대해 4조 원 이상의 자구 계획으로 이행률을 80% 이상까지 높이기로 했다. 업종 재편이 진행 중인 해운업종에는 6조5000억 원의 금융 지원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철강업종에는 6건의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승인을 통해 사업 재편을 가속화하고, 석유화학업종도 구조적 공급과잉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4건 이상의 기활법을 적용해 사업 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구조조정 효과의 극대화 차원에서 오는 3월까지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편

기획재정부는 25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액션플랜에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착수한 조선과 해운 업종의 구조조정 작업을 더 강화하고 일부 품목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한 철강과 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조선은 4조 원의 자구 이행을 통해 대형 3사의 10조3000억 원 자구계획 이행률을 지난해 42%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중로구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지난해 구조조정 원칙과 틀을 확립했다면 올해는 원칙과 틀을 토대로 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에서 더욱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에만 1800억 원 규모의 R&D(연구개발) 투자를 개시하기로 했다.

사업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해운업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통한 신조 발주, 글로벌 해양편드를 활용한 부산신항 터미널 인수 등 6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항만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는 환적화물 유

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개편 방안을 2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철강업종은 철강·설비와 신규 품목·설비 등에 대해 기활법 6건을 승인해 사업 재편 성과 창출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기능 소재 개발 등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석유화학업종은 전체 업황이 양호하나 일부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장선

에서 TPA(테트라프탈산) 등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에 대해서는 4건의 기활법을 승인해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구조조정 수단과 방법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과 같이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이 부실 정리와 기업경쟁력 회복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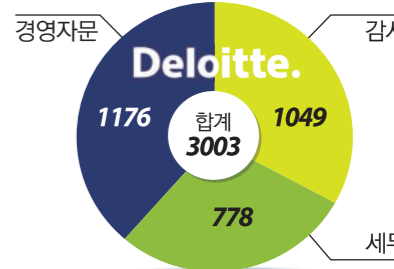
양창규 기자 yangck@

'대우조선 분식회계' 딜로이트안진 최대 6개월 영업정지할 듯

금감원, 4-5월 제재 조치 예상
3월 전 결정엔 결산감사 혼란

딜로이트안진 사업부문별 매출

(단위: 억원, 2015년 기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최대 6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딜로이트안진을 감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이 기관의 3~6개월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감리 막바지 단계"라며 "조치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아직 딜로이트안진의 영업정지 기간을 정하지 못한 것은 법인에 분식회계 책임을 물을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가 일부 회계사의 비리였는지, 아니면 법인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조치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2009년 영업정지 6개월을 받은 화인 경영회계법인은 감사인의 부실 감사와 법인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 당시 이 기관 회계사는 케이디세코의 분식회계를 맡고도 2008년 초 적정 견해를 냈다. 부실 회계가 드러난 이후에도 이 회사는 해당 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발행을 승인하며 조직 차원에서 감사 기준을 위반했다. 딜로이트안진의 경우 법

인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을 최근 기소했지만, 해당 법인은 직원 비리에 따라 기관의

책임을 자동적으로 묻는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법인에 대해선 직접적 기소 이유를 밝히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딜로이트안진 영업정지 조치도 6개월보다는 3개월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기업 등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제재가 언제 이뤄지느냐다. 3월 이전에 영업정지가 결정될 경우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이 경우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를 받는 3월 결산법인은 감사인을 감사보고서 작성 직전에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조치를 내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3월 중으로 감리를 마무리한다면 영업정지 시점은 4-5월께가 될 전망이다.

한편 딜로이트안진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시점인 오는 5월 이후에 감사와 비감사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이 기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회계 사기를 벌였지만 우리 법인은 조직적으로 이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작년 성장률 2.7%...2년 연속 2%대

4분기 GDP 1년반 만에 가장 낮은 0.4% 성장 그쳐...그나마 설비투자가 살려

작년 4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은 0.4%에 그쳤다. 연간 성장률도 2.7%에 불과해 저성장이 고착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관련기사 2편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GDP는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2015년 2.6%에 비해 1% 포인트 높지만, 2013년 2.9%와 2014년 3.3%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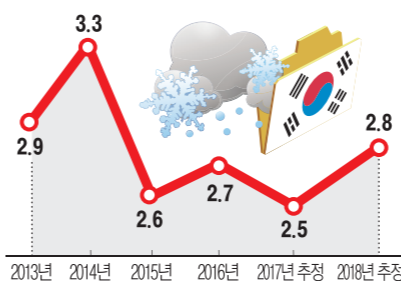
지난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은 무엇보다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었다. 작년 서비스업 성장률(2.5%)은 최근 6년 사이 가장 낮았다. 한진해운 사태 여파와 주식시장 불황,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의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

흔들리는 서비스업을 그나마 붙잡은 건 건설투자였다. 지난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11.0%로, 직전년(3.9%)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 성장 기여도도 전년 0.6%에서 1.6%로 올라

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0.4%를 기록했다. 5분기 연속 0%대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아졌고, 지난해를 떠받쳤던 건설투자도 5분기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부분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0.2% 증가한 데 불과했고,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줄어들며 1.7%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가 늘며 6.3%

경제성장률 * 출처: 한국은행
단위: % (2017~2018년은 한국은행 전망치)



증가했지만,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에 수출은 -0.1% 쪼그라들었다.

제조활동별로 보면 4분기 제조업은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남주현 기자 jooh@

AIIB에 캐나다·아일랜드·에티오피아 등 25개국 신규 가입 예상

중국, 세계 경제 주도권 강화 '젠걸음'

美·日 등에도 문 열어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주의를 내세워 연일 광폭 행보에 나서는 가운데 중국이 세계 경제 여권잡이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아프리카와 유럽, 미주 등지에서 약 25개 국가가 올해 새로 가입할 예정이라고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현재 가입한 나라는 57개국인데, 여기에 25개

국이 추가되는 것이다. 진리현 AIIB 총재는 전날 "회원국 확장으로 현재 1000억 달러(약 117조 원) 자본금을 보유한 AIIB의 대출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중국은 이미 발전했다. 이제 다른 나라에 공헌할 차례이며 책임 있는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새로 가입하는 나라는 캐나다와 아일랜드 에티오피아 등이며, 이들 나라는 오는 6월 연례 회의에서 가

입이 확정된다. AIIB의 외연 확장은 세계화의 수호자를 자처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시 주석은 이날 초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를 겨냥해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가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면서 작은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회원국이 늘어난다고 해서 중국에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다. 중국의

의결권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의결권은 26%로 사실상의 거부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AIIB 확장을 위해서라면 거부권을 기꺼이 포기할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화하자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가 시 주석에게 큰 선물을 안겨줬다"고 앞다퉀 보도했다. 미국이 TPP 탈퇴를 통해 스스로 무역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며, 이를 시 주석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발 빠르게 가둬들이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 패권이 중국에 넘어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반도체 최대실적에 화답한 삼성 협력사 인센티브 215억 쏜다

2010년 제도 도입후 최대규모

삼성전자가 25일 122개 반도체 협력사에 215억5000만 원의 통 큰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번 하반기 인센티브는 2010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대 규모다. 지난해 7월 지급한 상반기 인센티브는 95개 협력사 대상의 152억5000만 원 규모였다. 2015년 하반기 180억5000만 원보다 35억 원 더 늘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협력사에 사상 최대 인센티브를 쏜 것은 실적 호조 덕분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액 14조8600억 원, 영업이익 4조9500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은 2015년 3분기에 기록한 3조6600억 원으로, 이를 1조3000억 원가량 뛰어넘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생산성 격려금'과 '안전 인센티브' 2가지의 협력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생산·품질 관련 협력사를 격려하기 위해 2010년 '생산성 격려 인

센티브'를 도입한 데 이어, 2013년부터는 환경안전-인프라 관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 인센티브'를 각각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연초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협력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전액 협력사 직원들에게 분배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실 연휴 직전에 지급해 협력사 임직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SK이노베이션 역시 이날 울산 CLX에서 개최한 '2016년 정기보수 성공적 완수 기념 및 2017년 안전사약식'에서 협력사들에 10억여 원을 전달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협력사들은 이번 전달금에 각 회사별로 일정 부분을 더해 구성원들에게 설 상여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정기보수가 끝난 후 참여한 협력사들에 감사함을 전하기는 했으나, 명절을 앞두고 이처럼 큰 규모의 감사 표시를 한 것은 처음이다.

송영록 기자 syr@



김용환 회장 ▶8 박성택 회장 ▶14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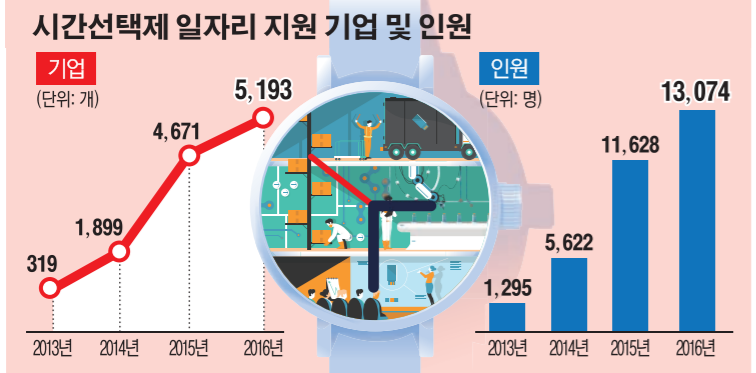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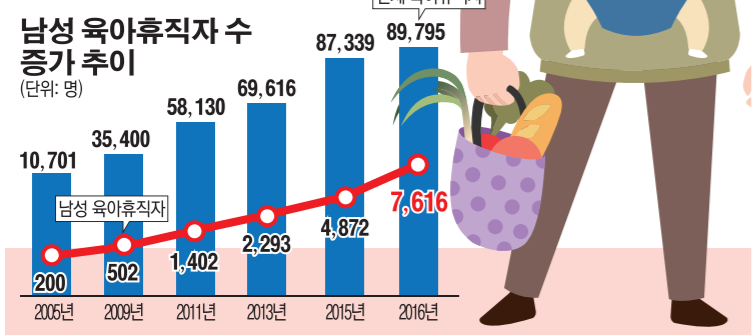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데이터 뉴스 Data News

‘당연한’ 아빠 늘었다... 작년 남성 육아휴직 56% 급증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증가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56.3% 증가한 7616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9년 502명에서 2011년 1402명으로 1000명을 넘어선 뒤 2013년 2293명, 2015년 4872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전체 육아휴직자 8만 979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를 돌파해 전년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703명으로 전년보다 2배 정도 늘었고, 남성 비율은 88.6%를 차지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두 번째 육아휴직은 대부분 아빠가 이용했다.

박은평 기자 pepe@



일가정 양립...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업 3년 새 16배로

최근 3년 새(2013~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기업 수가 16배, 지원 인원은 10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받는 기업은 2013년 319개에서 2016년 5193개로 늘었다. 인원은 1295명에서 1만3074명으로, 지원 금액도 34억 원에서 510억 원으로 증가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일하면서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차별이 없는 일자리다. 지원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2013년 7753원에서 2016년 9986원(취저임금 6030원 대비 166%)으로 높아져 1만 원에 육박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기업도 제조업(20.7%),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7.4%), 도·소매업(15.9%),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1.0%),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7.9%)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평 기자 pepe@

작년부터 덩크댄 車... 트럼프 폭주 견딜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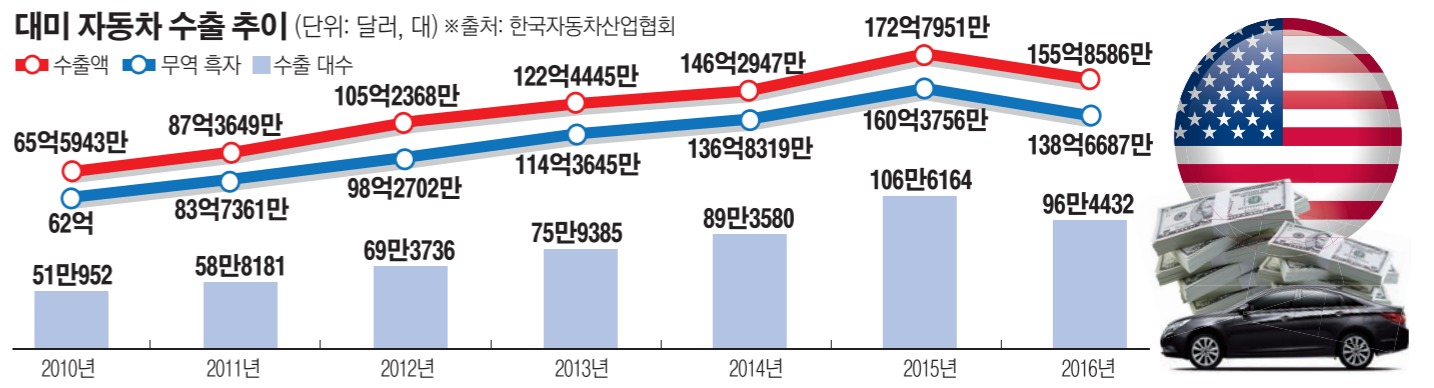
미국수출 7년만에 첫 감소

저유가 악재로 현대기아차 고전
전년보다 9.5%·18조 규모 줄어
미국수출은 22.4%↑ 최고치

FTA 재협상 ‘최악의 시나리오’
트럼프 한국 겨냥할라 ‘초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직접 겨냥할 경우, 자동차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총 96만4432대로 집계됐다. 역수로 따지면 155억8586만 달러(약 18조1800억 원)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 수입



은 6만99대로 전년 대비 22.4% 성장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2009년 44만9403대로 줄었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하면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왔다. 자동차 무역흑자(수출액-수입액)도 2009년 51억1424만 달러(약 5조9800억 원)에서 지난해 160억3757만 달러(약 18조7500억 원)로 3배가량 늘어났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자동차 수출이 7년 만에 꺾인 것은 현대기아차의 고전 때문이다. 현대차의 미국 수출은 2015년 36만 8172대에서 지난해 33만572대로 8.8%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아차도 45만5370대에서 33만2470대로 27% 급감했다. 장기화된 저유가로 미국 고객이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과 픽업트럭을 찾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차의 중소형 세단 중심의 라인업이 수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로 인한 생산 차질도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업계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손질에 나선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책 변화가 없더라도 ‘바이 아메리칸’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미국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미국산 차를 더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는 한미 FTA 혜택을 입은 대표 업종이다. 수출 대수가 많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이익을 본다는 주장이 그간 미국

내에서 제기돼왔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9월 전 세계에서 승용차 600만5366대를 수입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전체 수입의 13.3%에 달하는 79만 7737대로 멕시코(158만2186대), 캐나다(148만9957대), 일본(123만1148대)에 이어 4번째로 많다. 한국 승용차 수입액은 128억1922만 달러(약 14조9900억 원)로 캐나다(334억 4102만 달러), 멕시코(293억7706만 달러), 일본(277억9607만 달러), 독일(157억8120만 달러)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수입 관세(2.5%)가 부활하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연간 각각 2500억 원, 3000억 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밖은 ‘보호무역’ 안은 ‘내수부진’... 한국경제 7년째 ‘흑한기’

“정상화 기미 없다”... 한은, 성장률 전망 1년만에 3.2→2.5%
해외시각도 비관적... 日 노무라증권은 2.0% 턱걸이 예상도

2017년 성장률 전망치 (단위: %)

기관	전망	기관	전망	기관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	2.7	씨티	2.4	현대경제연구원	2.3
정부	2.6	도이체방크	2.4	LG경제연구원	2.2
경제협력기구(OECD)	2.6	골드만삭스	2.4	한국경제연구원	2.1
한국은행	2.5	한국개발연구원(KDI)	2.4	노무라증권	2.0
한국금융연구원	2.5	JP모건	2.3		

* 출처: 각 기관

한국경제에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는 보호무역주의의 맞을 올렸다. 국내에선 탄핵 국면에 생활불가까지 오름세를 보이며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회복은 정상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2%대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의 예상은 더 어둡다. 한은은 최근 올해 2.5%, 내년 2.8% 전망치를 내놨다. 지난해 1월만 하더라도 3.2%였던 전망치는 1년 사이 무려 0.7%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들의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014년 반짝 3%대를 제외하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무려 6년이나 2%대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전망치를 끌어내린 주된 요인은 내수 부진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전망치를 내놓으며 “미국 대선 이후 상황,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및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약화 등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소비와 투자절벽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데 있다. 전날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는 석 달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농·수산물 등 제값물까지 치솟으며 소비 위축을 가속화했다. 기업들마저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기업의 자금잉여는 한은의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보였다. 그만큼 소비와 투자 심리가 움츠러들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던 수출 앞에는 보호무역주의라는 가시밭길이 놓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랜 자유무역주의 전통을 폐지하고,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지난 20일 취임과 동시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선언하더니, 곧바로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 탈퇴 계획을 알렸다. 이에 더해 한미 FTA까지 재협상 테이블에 놓이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받게 될 수출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 및 외국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시선은 더욱 차갑다. 지난해 LG경제연구

원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2%, 2.1%로 제시했다.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에 턱걸이할 것으로 내다봤고, 씨티은행 등 10개의 글로벌 투자은행이 제시한 평균 성장률도 2.4%에 불과하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2%대 성장률이 계속되면 우리나라도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과감한 재정 확대와 구조 개혁을 통해 일부 대기업뿐만이 아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온기를 느끼는 구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이 캠페인은 이투데이와 함께 합니다

방학이 싫어요...

두 아이의 하루 용돈 3천원
9살 성준이 남매의 식사는 삼각김밥과 컵라면 뿐입니다

두 아이가 먹기에 부족한 식사
오빠 성준이는 이마저도 동생에게 양보합니다

학교에서 배불리 먹었던 따뜻한 한끼가 간절해집니다

홀로 끼니를 챙겨야 하는 아이들에게
든든한 희망이 되어주세요

경기후원문의 | 1644-7911 | www.gni.kr

성준이 후원

굿네이버스는 방학 중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아동들이 건강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급식지원 및 문화체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의 전문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일호 “채권銀보다 구조조정펀드 중심, 부실기업 정리”

(경제부총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

1조5000억 군함 조기발주·선박펀드로 10척 신조... 조선 수주절벽 해소 해양펀드 활용 해운업 금융지원... 한적물동량 유치로 항만 경쟁력 강화 철강, 후판·강관 설비조정 M&A 유도... 석유화학은 TPA 등 자율감축

정부가 구조조정 수단의 다양성을 효율화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조선업 수주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1조5000억 원 규모의 군함을 조기에 발주하고 선박펀드를 활용해 연내 1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열린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구조조정 수단의 다양성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점차 제약을 받고 있어 외국과 같이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이 부실 정리와 기업경쟁력 회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 2017년 액션플랜에 따르면 조선 산업의 경우 우선 업체별 사업 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대형 3사의 경우 올해 중 4조 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통해 자구계획의 이행률을 지난해 42%에서 올해 80% 이상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현대중공업의 2개 도코가 가동이 중단되고, 삼성중공업의 플로팅 도크 1개를 매각하기로 했다. 조선 3사의 직원인력은 지난해 7000명 감축한 데 이어 올해 1만4000명 줄어든다.

정부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공공발주(군함)를 조기에 발주하고, 국내 선사의 경쟁력 있는 고효율 선박 신규 발주를 지원하는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올해 1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지원한다.

대우조선은 자회사 웰리브 등 5개사를 매각하고, 무급휴직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해양플랜트 사업도 점진적으로 줄인다.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과 부동산을, 삼성중공업은 호텔과 R&D센터 등 비핵심 자산의 매각을 추진한다.

철강과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인력 3000명에 대한 교육·재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선 3사의 수주 물량 감소로 상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해운업은 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해 선사에 채용선하는 ‘한국선박회사’ 설립을 완료하고 1차 인수대상을 다음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캠코선박펀드는 지원 규모를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선종별 투자설명회를 5월과 11월 개최한다.

업종	주요 정책과제	추진 일정
조선	조선3사 자구계획 이행	연중
	특별고용지원업종 대형 3사 추가지정 여부 검토	3월
	플랜트 설계전문회사 설립	3월
	스마트선 상용화 로드맵 수립	3월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지원요건 완화	1분기
1.5조원 규모 군함 조기발주	상반기	
철강	철스크랩 유통·가공 전문기업 육성방안 수립	1분기
	철강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1분기
	3D프린팅용 메탈소재 생태계 조성 및 육성계획 마련	1분기
	고부가 철강재 R&D 착수	3분기
철강 산업현 지역거점 협력센터 지정	4분기	
공공부문 국산 철강재 수요 창출 협의	연중	
해운	한국선박회사 설립	1분기
	글로벌해양펀드 통해 터미널 등 자산 매입	4월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 선정	상반기
	해운업 등록기준 상향 및 용선관리 강화 법령개정	상반기
환적화물 인센티브 확대 방안 마련	2월	
석유화학	해수담수화 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1월
	공급과잉 우려 품목 추가발굴 및 사업재편연구회 운영	2월
	정밀화학, 플라스틱, 고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운영	3월
	탄소 융복합소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	3월

정부는 상반기 중 글로벌해양펀드를 활용한 6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본격화한다. 해양보증보험의 경우 보험 담보기반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없거나 낮은 중소기업 등을 위한 신규 보증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개편 방안을 오는 2월까지 마련하고 해운-조선 상생협력 체계를 통해 업종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산-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0월 마련할 계획이다.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공급과잉 품목인 후판, 강관 분야에 대해 설비조정과 인수·합병(M&A)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후판, 강관 등 수요침체가 심각한 품목에 대해 공공부문의 국산 철강재 수요창출 방안을 협의하고 철강산업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1분기 중 수립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고기능 소재 개발과 설비 스마트화를 위해 경량소재 연구·개발(R&D) 등에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는 화학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의 기밀법 신청·적용을 추진 중이다. 테레프탈산(TPA)의 경우 M&A 또는 자율 감축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울산 지상배관망 구축 지원 방안을 수립해 민간업체 주도로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세특례범의 R&D 세액공제 대상에 고기능섬유, 하이퍼플라스틱 등을 포함하고, 석유화학과 첨단정밀화학 업체가 집적화된 특화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산업銀·수출입銀, 2차 혁신 방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신관리: 계열별 신용한도 제도 신설 인사체계: 직군별 인사관리체계 구축 사외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참여 역할강화: 중견기업 육성·신성장분야 지원 경영평가: 산은, 수은, 기업은행 공동 개선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평가 시스템 정비·조직 체계 개편 이중 경력 경로 도입 리스크관리위원회 추가 선임 신시장개척·신성장산업 지원

産銀, 계열기업 신용한도제도 신설 철저한 여신관리 구조조정 활성화

사외이사 역할 강화 내부통제위 참여 輸銀, 중장기금융 신용평가체계 개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인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향후 추진할 혁신 방안을 내놴. 산은과 수은은 지난해 10월 기업 구조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출자회사 관리를 강화하며, 임직원의 자회사 재취업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은은 우선 올해 2분기까지 계열별-계열기업별 신용한도(Credit Line) 제도를 신설해 운용하기로 했다. 산업 전망 등 장기적 요소도 반영하는 여신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계열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체계를 개편해 사전적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계열 소속기업들이 속한 산업분석, 재무상태, 자금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년 단위로 신용한도를 부여하고 수시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2분기까지 20개 계열에 대한 신용한도 설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금융전문가 육성을 위해 직군별로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외이사 역할도 강화한다. 회장, 전무이사, 준법감시인, 위원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에 사외이사 참여를 통해 내부통제 취약 분야를 막겠다는 것이다.

체계적인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도 내놴. 총 2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특별자금대출, 해외진출펀드 등 금융지원과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병

행한다.

아울러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적극 참여를 통한 금융 코디네이터 역할을 강화해 국내기업의 인프라사업 수주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산은 보유주식에 대한 시장가격 매각 원칙을 정관 등에 규정화하고 신(新) 성장 분야에 대한 효율적 지원시스템 구축, 팀장 이상 간부직까지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개방형 직위도 연내 마련해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

수은도 기존 국내 차주 중심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확대·개편해 해외 차주에 대한 체계적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장기금융 신용평가 시스템을 정비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여신조직 체계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중장기 금융 체계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신용공여 한도도 축소하고 사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검토 인건도 자산건전성 분류 등 여신관리 현황도 보고한다.

임원추천위원회, 준법감시인 도입, 경영자문위원회 개편 등 감시·견제 기능도 강화한다.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이중 경력 경로(Dual Career Track)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은, 수은, 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은 공동으로 경영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경영평가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선업종에 대한 부실대출에도 산은과 수은의 CEO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곽도훈 기자 sogood@



농장에서 온 프레스드주스 델몬트 파머스 주스바

플로리다 농부가 키우고, 델몬트가 엄선한 생오렌지 10.3개를 통째로-프레스드 착즙으로 갓 짜낸 듯 신선하게!



파머스 주스바의 신선함은 저온충전 어센틱 PACK/PET로부터-저온충전(아름) 고온에서 순간살균된 주스를 무균필름 공인에서 저온상태로 어센틱 PACK/PET에 충전하여 주스의 맛과 영양소를 최대한 살리는 생산방식입니다

롯데칠성음료
유통기간 확인하여 식품안전에 유의하십시오

◆ 제품량량 ◆ 1L: 오렌지 100%, 자몽 100% ◆ 750ml & 240ml: 오렌지 95%, 자몽 5% / 자몽 95%, 오렌지 5%

與, 보수 '재결집'... 野, 연대 '안간힘'

새누리, 내달 당명교체 신호탄
지지를 상승 '황교안 카드' 모색
김문수·김관용 등도 후보 거론
더민주 '완전국민경선제' 확정
박원순·김부겸 반발 불참 가능
정운찬·김종인 제3지대서 경쟁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새누리당 반성·다짐·화합을 위한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당직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정령정책위원장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을 관련 의결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새누리당이 2월 초 당명 교체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25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시달리면서 인적정산을 마무리했고, 새 정책 방향도 발표했다”면서 “조만간 새 당명이 확정되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당을 끌어가는 대선모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선 경선을 흥행시킬 방법도 구상 중”이라고 했다.

어야 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관목할 만한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황 권한대행은 출마 문제를 두고 당 친박계와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초선 의원들까지 그의 출마를 부추기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당분간 국정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지지율 추이를 지켜보며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의 후보 단일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부산과 대전을 돌며 민심을 살피고 있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여의도에 출마시킨 싱크탱크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을 중심으로 대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조경태 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도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을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르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가장 먼저 경선 규칙을 확정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등 군소주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일부 후보들의 경선 불참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들과 함께 반 전 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중헌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은 모두 제3지대에 모일 수 있는 인사들이다.

“낡은 ‘올드’ 밀어내고 미래 향한 ‘뉴 리더십’으로” 남경필,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대선 참용으로 꼽히는 남경필(사진) 경기도지사는 25일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표를 던졌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바른정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먼저 “낡은 ‘올드’를 밀어내고, 미래를 향한 ‘뉴’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치적 ‘세대교체’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념과 정파를 떠나, ‘뉴 리더십’으로 무장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위한 (가칭) 2017 선언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제1조를 지켜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남 지사는 특히 “지난해만 전국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이 넘는 15만4000개의 일자리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다”면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임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바닥부터 리빌딩해서 나오는 종합적 결과물은 결국 일자리”라며 “국가적 역량을 모아 새로운 혁신형 일자리, 공동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지사는 모병제 전환, 전시전 직권 환수 등에 기반을 둔 ‘한국형 자주국방’과 국가가 플랫폼이라는 기회의 공유지를 제공하고 리스크도 분산하는 ‘공유적 시장경제’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남 지사는 이날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는 설을 맞아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세배를 올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입은 농민을 격려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전민정 기자 puri21@

반기문 “국민, 새 정치에 목말라 대통합 길 여는 데 동참해달라”

국회서 ‘제3지대’ 직접 세일즈... 범여권 의원 25명 참석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국회를 찾아 범여권 의원들을 상대로 ‘제3지대’ 세일즈를 벌였다.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초청간담회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반 전 총장의 ‘제3지대’ 설명회와 같았던 간담회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 25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왜 정치교체인가’라는 주제로 1시간여 동안 자신의 정치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비공개 간담회 전 모두발언을 통해 “한 패권이 다른 패권으로 넘어가는 악순환이 아니라 참다운 정치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치교체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기존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제3지대로의 손길을 이어갔다. 반 전 총장은 “나라가 어려울수록 정치가 국민의 각박한 삶을 위로하고 분열을 치유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치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자체가 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에 목말라 있다”면서 “한국이 성공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정치부터 바꿔 대타협이 이은 대통합으로 가야 하고 보수진보 좌우 대립을 넘어 삶을 구체적으로 쟁길 수 있는 정치를 만드는 데 여러분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반기문(왼쪽) 전 UN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왜 정치교체인가’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정의를 바로 세우려 대한민국의 대통합 길을 여는 데 제가 미력하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 주고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새누리당 96명의 원 중 24명이 참석했다. 4명 중 1명꼴로, 실 전 동반탈당설이 도는 이들도 다수 자리했다. 반 전 총장의 측근을 자임하

는 정진석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충청권 의원은 물론 나경원·신상진·정유섭 등 수도권 의원들, 그리고 폐족 위기에 놓인 친박근계에서도 민경욱·김석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전날 창당식을 가진 바른정당에서 이은재 의원이 유일하게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총리·장관 인사청문회 사전검증제 도입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국무총리, 장관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위해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게 했다.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사전검증기준·내역 및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도덕성 시비에 매달려 정작 업무 적합성은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기존 청문회의 폐해를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제도는 국회의 중대한 행정부권력제권의 하나로, 중대한 공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도덕성 등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의 필요성 등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공직후보자를 선별해 이들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검증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검토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현행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이원적 운영에서 인사청문회를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업무를 일원화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회의 일정이 위원선임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힘들 때일수록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가정경제는 물론 나라경제도 튼튼히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키우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시민경제

힘든 생활속에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당신에게 대한민국 경제 키우미 캠코가 다시 일어날 힘이 되어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재기의 희망을! 캠코 온비드로 다양한 부동산 재테크 기회를! 국가토지관리 및 미납세금회수로 국고를 튼튼히!

재정조기집행 달성 총력 선금 지급률 10%P 확대

기재부 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1분기 31%·상반기 58% 달성 '4대 지침' 발주 계약절차 등 집행절차 간소화하고 사회기반시설 조기완공 추진

정부가 올해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의무적인 선금률을 10%포인트 높이고 계약절차와 보조사업 절차를 단축한다. 동흥천~양양 고속국도 개통과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도 앞당긴다. 기획재정부는 송인식 2차관 주재로 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과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31%) 및 상반기(58%)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행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조기집행 4대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4대 지침을 보면 우선 선금집행 활성화를 위해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올린다. 현행 계약금액 대비 30~50%의 의무적 선금률을 40~60%까지 상향한다. 선금지급,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이행 검사검수 등 심사에 소요되는 계약절차 기간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또 보조사업 집행을 앞당기고 교부 지연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자사업 처리(20일 이내), 출원사업 협약체결(1개월 이내), 일자리사

업 공모(30일 이내), 수시배정 협의(10일 이내)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사회기반시설(SOC) 등 주요사업은 조기 완공을 추진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일자리사업을 신속하게 제공해 조기집행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동흥천-양양 고속국도는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교통망 조속 지원, 여름 휴가철 관광객수 대응 등을 위해 당초 예정에서 6개월 앞당겨 올해 6월까지 개통하기로 했다. 일자리사업은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 가능한 사업 14개를 선정·관리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기관은 이달 선정을 완료한다. 연구개발(R&D) 사업은 지역별 현장설명회 개최, 과제공모 및 협약체결 등 관련 절차를 1분기에 마쳐 예년 대비 2개월 이상 집행 절차를 단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시행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1분기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찾은 산업2차관



우태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IFC2빌딩 양참 회의실에서 제임스 킵(왼쪽) 회장 등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우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FTA가 긍정적인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양측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AI·사드에 '삼계탕' 中수출 브레이크

지난달 5500kg 전달보다 92.3% 급감
농협목우촌·참프레·교통식품 완전 중단
AI 검역강화에 통관만 두 달 이상 걸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영향으로 활로를 찾던 중국 삼계탕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삼계탕 수출은 약 5500kg 규모로 전월(7만1870kg)에 비해 92.3% 급감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중국 정부에 등록된 국내 삼계탕 가공업체 5곳 중 농협목우촌과 참프레, 교통식품 3곳은 AI 관련 검역 조건에 따라 대중국 삼계탕 수출이 중단됐다. 하림과 사조화인코리아 2곳은 수출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통관 절차가 엄격해져 2달이 넘어간다는 설명이다. 중국 정부 등록 업체에서 삼계탕을 공급받아 현지 판매를 추진한 식품 대기업도 대중국 삼계탕 수출을 중단한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삼계탕 12톤을 중국에 수출했던 대상은 AI 여파로 검역증 발급이 되지 않으면서 수출을 멈췄다. CJ제일제당은 자사의 한식 브랜드 '비비고'를 통해 중국에 삼계탕을 판매할 계획이었지만 진출을 보류한 상황이다. 정부와 식품업계는 2006년부터 중국에 삼계탕 수출을 추진했지만 검역이나 위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지난해 수출이 성사된 바 있다. 지난해 중국 삼계탕 수출량은 190톤으로 약 85만 달러 수준에 그쳤다. 당초 정부 목표인 500톤에 한참 못 미치는 규모지만 이마저도 AI와 사드배치 경제보복 확대로 수출길이 막혀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명절 기차표 30% '노쇼'

명절 기차표의 30%는 노쇼(예약부도)이고 이에 따른 위약금만 19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설·추석 명절기간 중 발권된 기차표(총 1526만 9000매) 가운데 30.2%에 해당하는 460만7000매가 취소·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반환된 기차표는 재판과 과정을 거치지만 전체의 4.5%인 69만1000매는 재판매조차 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돼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된다.

최근 2년간 취소·반환 460만 장
위약금만 19억8000만 원 달해
이처럼 기차표 예매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2년간 19억8000만 원에 달했다. 홍철호 의원은 "노쇼로 인해 많은 귀성·귀경객이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무책 임한 예약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나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 역시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향후 적정환 위약금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특히 명절 예매취소의 경우 별도로 수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도훈 기자 sogood@

아시아·유럽 경제장관, 9월 서울서 모인다

ASEM 경제장관회의
9월 21~22일 개최 확정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 회의가 오는 9월 21~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부터 ASEM 회원국의 의견을 모아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 시기와 도시를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SEM 경제장관회의는 아시아와 유럽 통상·경제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내 무역·투자 원활화와 확대,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1997년 일본에서 1차 회의를 가진

ASEM 경제장관회의는 2005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된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2년간 중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ASEM 정상회의에서 다음 ASEM 경제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개최 도시는 유치제안서를 신청한 서울, 부산, 인천, 제주도 등 7개 지자체 중 행사장·숙박시설, 교통 여건, 관광·문화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로 선정

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세계 경제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시아와 유럽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역내 무역과 투자 활성화 방안,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역내 디지털 연계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철도 내 난동 꼼짝마"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대응

지난해 열차 직무집행방해 등 87건
"처벌 강화" 여론 반영 엄정 대응 방침
수사기관 신고 강화 질서 확립키로

정부가 철도 업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 협박, 폭언 등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최근 항공기 내 난동사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 철도경찰관과 열차 내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철도안전법 위반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직무집행방해와 성폭력은 87건이 발생했다. 전년(104건)에 비해 줄긴 했지만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다. 또 열차 내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102건, 퇴거나 인계가 2건 발생했다. 시속 300km 이상으로 운행 중인 KTX, SRT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내 등에서 난동을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는 오히려 철도안전에 위협이 되고 더 큰 제2차 사고가 우려된다. 철도지역 내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형법보다 강한 수위(폭행·협박)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하도록

국 철도안전법 관련 규정은 완비됐으나 그동안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국토부는 정도가 심한 직무방해 행위자에게는 철도경찰대로 하여금 무관용 원칙수사를 적용하도록 관할 검찰과 업무협의 대책을 마련하고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 피해 대응 방안도 관련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열차 내 모니터, 정기 간행물(잡지), 차내 방송 및 전용 앱을 통한 철도안전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철도지역 내 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박도훈 기자 sogood@

KB 금융그룹

KB손해보험
국민과 함께
희망을 쓰다

국민을 잘 아는 금융솔루션과
보험 전문가의 노하우로
"걱정없이 든든하게 지켜주세요"
"저 김연아의 평생 희망파트너는
KB손해보험입니다."

아이들 튼튼하게, 희망을 든든하게 무배당
KB아이좋은자녀보험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6-3909호(2016.8.16)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www.kbsure.co.kr
·고객콜센터: 1544-0114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평생 희망파트너
KB손해보험

왕실장 잡고 재벌 놓쳐...반환점 돈 특검 '절반의 성공'

박 대통령·우병우에 화력집중

'블랙리스트' 김기춘 구속 성과 이재용 '뇌물죄' 영장기각 미완 내달 초 대통령 대면조사 목표 우병우 계좌추적 등 사전적업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식 수사기간이 다음달 28일 만료된다. 일정상 반환점을 돈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체와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등을 상당 부분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세가 꺾이기도 해 조만간 이뤄질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내용에 따라 최종 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특검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흥완선(6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주진형(58)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불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특검은 현재 뇌물죄 관련 판례를 분석하면서 삼성과 박 대통령 간 대가성 거래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삼성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미르와 K

특검 70일 반환점, 수사 일지

- 2016년 12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70일간 공식 수사 개시
- 상징 항정 압력
- 12월 31일 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 구속
- 2017년 1월 10일 남궁근 구속 이화여대 전 입학처장
- 1월 12일 김중덕(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속
- 1월 18일 김경희(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 구속
- 70일간 수사 반환점
- 1월 19일 류철권(평명 이인화·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구속
- 박 대통령 - 대기업 뇌물 의혹
-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1월 21일 이인성(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 구속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 김기춘 구속(전 청와대 비서실장)
- 조윤선 구속(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1월 25일 최경희(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 기각
- 2월 28일 ! 기간 연장 검토
- 특검 수사 기간 종료
- 기간 종료 3일전 연장신청 가능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재판에 넘긴 것은 특검이 수사 초반 거둔 성과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이화여대 입시비리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등 크게 4갈래로 수사해왔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는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대 입시비리 부분도 최경희(55) 전 총장의 영장이 비록 기각됐지만, 기소 방침을 정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후반전에 접어들 특검은 다음 달 초 순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목표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막바지 검토 작업에 힘쓰고 있다. 또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의 소환을 앞두고 계좌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수사하기 위한 필수작업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수사기간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남상태 대우조선 전 사장 추가기소...삼우重 고가 인수 지시

검찰, '경영비리' 수사 일단락

검찰이 남상태(67·사진)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수사가 일단락됐다. 다만 분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소하지 않아 다음달까지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4일 남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남 전 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병주(65) 전 삼우중공업 사장도 불구속 기소



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측근인 이창하(61) 디에스온 대표가 신축한 당산동 빌딩을 회사 돈으로 분양받아 공실로 방치하고, 오만 해상호텔 관련 허위 공사대금 36억 원

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전 사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해 11월 이 대표 관련 4억 원대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된 데 이어, 이번이 3번째 기소다.

남 전 사장에게는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인 분석회계 혐의 추가가 남아있다. 남 전 사장이 분석회계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회사 담당 직원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기소를 위한 막바지 작업 중이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평창올림픽 붐업"...서울시, 올해 관광객 1700만 목표

작년 1350만명 지출액 26.7조원 서울시 한해 예산과 맞먹는 규모 목표치 26%↑...60만명 고용창출

서울시는 올해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1700만 명으로 잡았고 25일 밝혔다. 이로 인한 취업유발 인원은 60만6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는 지난해 1350만 명보다 26%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쓴 총 지출액은 26조7000억 원(추정치)으로 서울시 한 해 예산(2017년 29조8000억 원)에 버금간다.

서울시는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및 서울 방문수요 창출 △타깃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투어리스트피케이션 대책 마련 △2000만 관광 수용 위한 기반 지속 강화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우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붐업을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올림픽을 계기로 평창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서울의 매력을 알려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해의 주요 전략시장과 신성장시장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 활동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해외 관광마케팅에 총 162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서울 방문 관광객의 46.8%를 차지하

는 중국은 '싼커(散客)'로 불리는 개별관광객(전체 중국 관광객 중 59.1% 차지)을 집중 공략한다. 재방문율이 높은 일본 시장의 방문 수요를 지속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일본여행업협회 및 대형여행사들과 협력해 '서울로 7017', '한양도성' 등 신규 관광명소 방문 여행상품도 개발키로 했다.

안준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2017년은 UNWTO(세계관광기구)가 정한 지속가능한 세계 관광의 해이자 2018년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기 위한 골든타임만큼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붐업시키는 등 5대 과제를 적극 추진해 대한민국 전체 관광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isa@

설빔 설레는 동심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한 어린이가 설빔을 입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낙원동 붕괴사고 재발 막자 5층이상 철거 사전안전심의

서울 낙원동 붕괴 사고와 같은 철거공사장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5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 안전심의를 거치게 했다.

서울시는 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공사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의 안전조치 계획 이행 여부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상 5층 또는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은 철거할 때는 철거 안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구 건축위원회가 철거 계획을 꼼꼼히 살펴볼게 한다.

현행법상 안전관리 규정이 부족한 부분은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시는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된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바꾸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전문 기술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 설계제'를 도입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철거공사는 건축물 규모에 관계 없이 철거신고(처리기간 1일만)하면 별도의 검증 없이 바로 다음날에도 공사가 가능하다. 이선애 기자 isa@

옛 서울국세청 별관 터에 '통합 시민광장'

대한성공회 앞마당 등 총 1939㎡

근현대사의 기억을 품고 있는 덕수궁 인근 옛 국세청 별관 부지와 바로 옆 대한성공회 앞마당 총 1939㎡가 하나의 시민광장으로 조성돼 2018년 하반기 시민에게 개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근상 대한성공회주교는 25일 서울시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 시민광장'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통합 시민광장이 들어설 국세청 별관 부지는 현재 지하층 굴포를 위한 흙막이 공사 중이며, 서울시는 대한성공회와 실무협의를

통해 광장 조성범위 및 유지관리, 운영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통합 시민광장과 서울시의회 앞마당, 인근 보도의 바닥재를 통일시켜 이 일대를 하나의 열린 시민광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시민광장 조성은 서울시가 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시절의 잔재였던 옛 국세청 별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해 오는 2018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이선애 기자 isa@



밥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맛있는 음식 뿐이 아닙니다

계란반찬 한 개라도 나눠먹는 나눔 한 입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차린 협동 한 접시

부모님이 먼저 드시길 기다리는 존중 한 수저

동생을 위해 생선가시를 발라주는 배려 한 접

인성 밥상

함께하는 밥상에서 아이의 인성이 자랍니다

초록우산 인성교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관, 지역본부, 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센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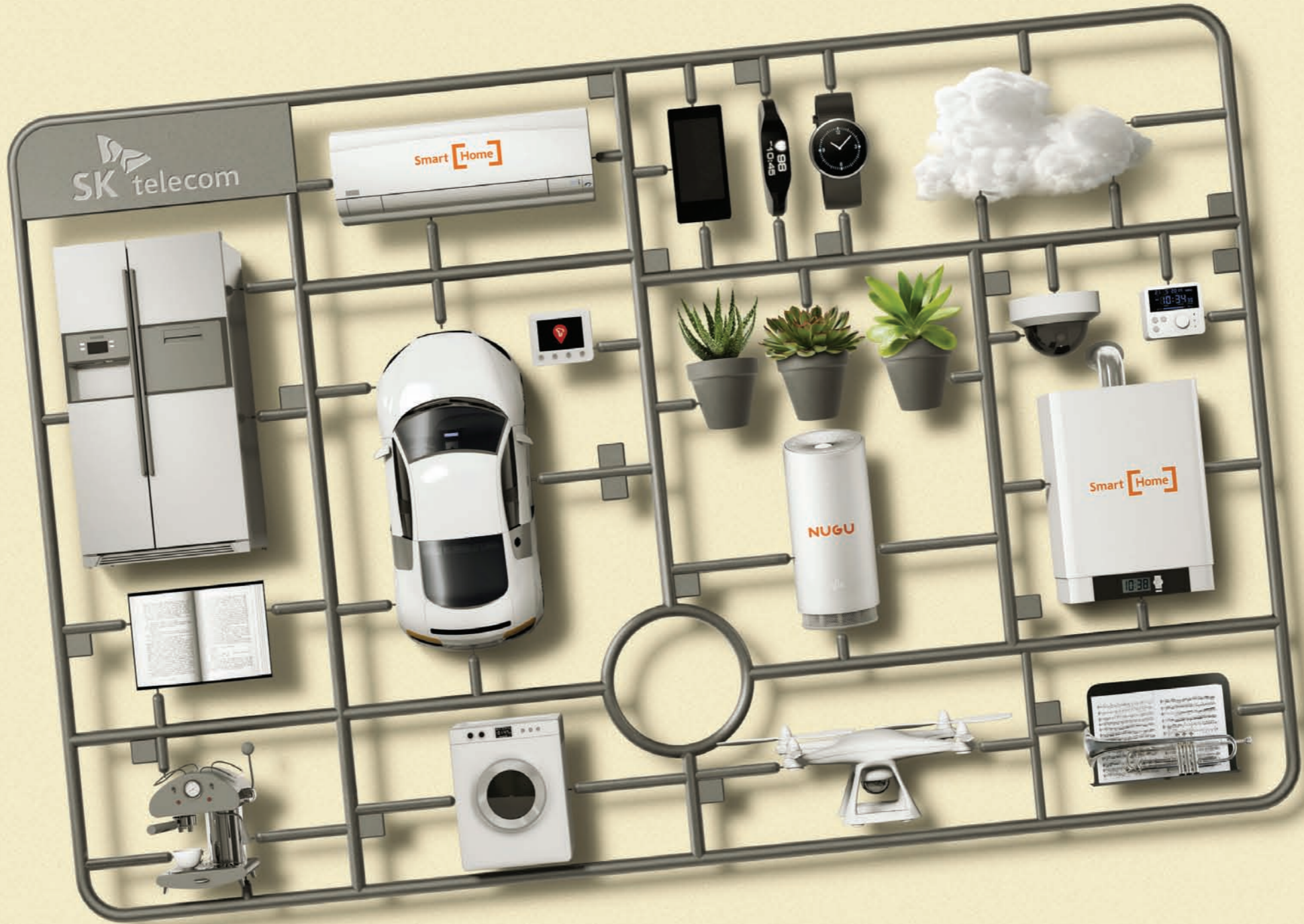


후원문의 1588-1940



만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연결된 당신의 세상



하나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을, 연결은 가능하게 합니다
 SK텔레콤은 '스마트홈', '인공지능', 'IoT 플랫폼'이란 이름들로
 전에 없던 편리한 생활을 만들어 냅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 더 큰 능력을 이끌어내는 연결-
 이제 그 연결의 힘이, 당신의 집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순이익 48% 급등... 하나금융, KB 맹추격 '톱2' 노린다

계열사 KEB하나은행 작년 1조3872억 순이익 실적 견인
저원가성 예금 늘고 기업대출 10조 줄여...자산건전성 올라
어렵다던 하나카드도 순이익 650% 급등하며 756억 달성

하나금융지주가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래 연간 최대 실적을 올렸다. 순이익 규모에서 업계 2위인 KB금융지주와 아직 차이가 존재하나 증가율로 놓고 봤을 때 추격권에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금융그룹은 24일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1조3451억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전년보다 47.9%(4354억 원) 급증한 수치다. 주요 은행지주회사와 비교하면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다음 달 실적 발표를 앞둔 신한금융지주는 순이익이 2조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KB금융지주의 작년 순이익 컨센서스는 2조2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발로 들어온 예금들... 기업 여신 축소도 적중 = 하나금융지주의 실적 호조는 최대 계열사인 KEB하나은행이 지난해 4분기 1263억 원을 포함해 1조3872억 원의 순이익을 거둔 영향이 컸다. 전년(9699억 원) 대비 43% 늘었다. 대출 포트폴리오의 질적 개선을 이루고 핵심 저금리성 예금을 증대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불확실한 국내외 금융 환경에 갈 곳 없는 대기성 자금이 금리가 거의 없는 보통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에 몰린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핵심 저금

항목	2015년	2016년	변동률
BIS비율(추정치)	13.31%	14.26%	0.95%p증가
고정아하여신비율	1.27%	0.92%	0.35%p감소
연체율	0.68%	0.50%	0.18%p감소
이자이익	4조5390억 원	4조 6420억 원	2.3%증가

리성 예금 잔액은 46조6860억 원으로 1년 만에 6조1000억 원(15.1%)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도 순이익이 증가한 배경이다. 하나은행의 자영업자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지난해 각각 6.4%(4조 원)와 8.4%(7조4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대기업 대출은 10조 원 이상 줄여 기업여신 비중이 높은 외환은행과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 여신을 대폭 줄여 포트폴리오 개선 작업을

마쳤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한 데는 대출 자산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조정된 영향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적극적인 부실채권(고정아하여신) 정리 및 부실 대기업 대출 축소로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도 끌어올렸다.

지난해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6.79%로 전년 말(14.65%) 대비 2.14%포인트 뛰었다. 지난해 부실채권을 7580억 원(30%)가량 줄

이면서 고정아하여신비율은 0.84%를 기록했다. 하나은행의 고정아하여신비율이 1% 밑으로 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어렵다더니... 거짓말 같은 하나카드 순익 = 계열사 중에선 하나카드의 순익 증가폭이 600%를 웃돌았다. 하나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7% 폭증했다.

세부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일반영업 이익 5951억 원, 판매관리비 3045억 원, 영업이익 945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실적은 가맹점 인화 추세에도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시너지 효과, 채권 매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카드 상품인 '원큐(1Q)' 카드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나카드는 지난 2014년 12월 옛 하나 SK카드와 옛 외환카드가 통합하면서 새롭게 출범했다. 2015년 7월 전산통합을 하면서 160억 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년 실적에

일부 반영됐다.

또한 양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계약을 한 곳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원큐시리즈 영업도 선행했다. 지난해 원큐 신용카드 시리즈는 110만장을 발급하면서 이용회원 수 350만 명을 달성했다.

장단기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이익도 순익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해 카드론이 증가한 것도 순익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하나카드 카드론은 2015년 9월 1조8575억 원에서 작년 9월 2조2415억 원으로 20.7% 증가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2015년에 투입된 통합비용이 지난해 큰 폭으로 절감됐고, 원큐카드가 많이 팔린 것도 순익에 기여했다"며 "각종 광고비 등 비용을 절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서지하·박일경·박규준 기자 jhsseo@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



홍보대사 이금희, 서경석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TAX 절세혜택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소득공제로
최고 125만원 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적립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복지
상해보험(2년), 법률·세무 등 자문을 무료로
유양시설 등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 본 상품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우체국,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계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장이 공적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농축협·농협은행 전산분리 막바지 설 연휴에도 출근하는 김용환 회장

2000억 투입 초대형 프로젝트 마무리
27~30일 모든 금융거래 일시 중단



농협금융 전산시스템 분리 작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인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농·축협과 NH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한 모든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된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차를 타고 휴식을 취한다.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한 회장은 신한금융 차기 회장 인선 이후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후속 인사에 대해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와 손발을 맞추기 신한은행장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회장은 임기 마지막 해에 속도감 있게 진행한 경영 실험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점검한다. 김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KEB하나은행과 옛 외환은행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에 대해 계속 고민한다.

정호진 기자 js62@

30,000 Inaugural Cross-border Credit C



우리카드, 3억 달러 규모 해외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우리카드는 HSBC를 단독 투자자로 3억 달러(한화 약 3600억 원) 규모의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유구현 우리카드 사장과 수렌드라 로샤(Surendra Rosh) HSBC은행 홍콩 아태지역금융 부문 대표는 24일 오전 홍콩에서 해외 ABS 발행 체결식을 가졌다. ABS 발행 조건은 만기 3년,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AAA 등급을 부여했다.

사진제공 우리카드

허재성 전국은행연합회 감사 내정 한은 부총재보 출신 '낙하산' 논란



까지 업무를 보고 있는 이정하 현 은행연합회 감사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을 역임했다. 전 임은 KB국민은행 상임감사를 지내기도 한 정병기 전 재정경제부 감사담당관(부이사관)이다.

허 선임 감사 내정자는 다음 달 초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적자율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검증 과정에서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 무난히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아·박일경 기자 kakim@

전국은행연합회 신규 감사에 허재성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사진·58)가 내정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지난 2014년 1월 5일 취임해 3년 임기가 만료된 이정하 감사 후임이다. 대체적으로 기획재정부 또는 금융위원회 관료가 많았던 은행연합회 감사 자리에 한은 출신이 내려오면서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 5일로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이랜드그룹 품 떠나는 티니위니

중 브이그라스에 매각 확정... 8770억 국내 패션브랜드 최고액
올해 1분기 부채비율 240%대로 낮아져... 재무구조 개선 전망
이랜드리테일 IPO·부동산 매각 등 연말까지 200% 미만으로

이랜드그룹이 '티니위니' 매각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으면서 올해 1분기 내 부채비율을 240%대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 기업공개(IPO)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더 낮춘다. 이랜드그룹은 내달 20일 티니위니 매각 대금으로 51억3000만 원(약 8770억 원)이 지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랜드 고위 관계자는 "티니위니에 대한 중국 의법인의 공동비 배분기준 등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해 치열한 협상

이 이어졌다"며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에 티니위니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면 브이그라스(V-GRASS)는 티니위니를 명실공히 글로벌 브랜드로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양 사의 믿음 아래 딜 클로징을 최종적으로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번 매각 금액은 국내 패션 브랜드의 국제 인수·합병 매각가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순자산 장부가액이 1200억 원 규모인 티니위니 매각으로 이랜드가 거둬들인 매각 차익은 7500

억 원 수준이다. 이랜드는 매각 금액의 10%를 신설 티니위니 법인에 투자해 지분 참여하고 이외에 금액은 차입금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티니위니 상표권과 사업권을 가진 신설법인의 지분 90%는 매수자인 중국 브이그라스가, 나머지 10%는 이랜드 중국 여성복 법인인 의법인이 보유하게 된다. 이랜드가 가진 10% 지분은 브이그라스와의 안정된 협력 관계를 고려해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랜드는 티니위니 매각대금 유입만으로 올 1분기 부채비율을 240%까지 낮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랜드는 지난해 3개 부동산 매각(서울 흥대역 및 합정역 부지, 마곡 상가 부지)을 통해 25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바 있으며, 올해 1분기 중 2000억 원, 상반기까

지는 누적 5000억 원의 추가 부동산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이랜드리테일의 IPO를 상반기 내 실현해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랜드는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업적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을 다질 방침이다. 비수의 자산(매장, 브랜드)과 비활성부동산 등을 과감하게 정리해 차입금을 줄이고, 양적 성장보다는 감점에 맞춘 수익성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펼칠 계획이다. 또 한국에서의 성공경험을 이식해 중국에서도 패션과 유통의 양대 사업 축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유통은 최소한의 리뉴얼 비용으로 유통점 오픈 확산 속도를 높여 제2의 성장 엔진으로 삼을 계획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IoT·AI로 무장... 더 강력해진 삼성전자 에어컨·공기청정기

스피드 냉방·전력절감 '무풍에어컨'
청정·가습기능 동시에 '블루스카이'
'스마트홈' 기술 어디서든 제어 가능



삼성전자가 IoT와 AI가 적용된 2017년형 '무풍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를 25일 출시했다. 삼성전자 모델들이 신제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2017년형 '무풍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를 선보이며 에어컨에 솔루션을 한층 강화했다. 이들 신제품은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가 25일 공개한 신형 무풍에어컨은 강력한 '스피드 냉방'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온도까지 빠르게 도달한 후 '무풍 냉방' 기술로 균일하게 냉기를 뿌려주는 제품이다. 지난해 1월 첫선을 보인 제품 대비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AI 기술을 접목해 더욱 스마트하게 진화시켰다. 스탠드형 외에 올해는 벽걸이형 에어컨도 출시됐다. 무풍에어컨 벽걸이형은 이달 초 열린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한국뿐 아

니라 유럽·미국·동남아 등 세계 각지에 출시될 예정이다. 무풍 냉방을 적용하면 일반 냉방을 했을 때보다 스탠드형이 최대 90%, 벽걸이형이 최대 72%가량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강력한 정정 기능은 물론 청소·관리가 간편한 가습 기능까지 더해진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 6000'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초미세먼지와 0.02μm 크기의 나노 입자까지 99%

걸러 주는 강력한 공기청정 능력을 갖췄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정수순환' 방식의 자연가습 공기청정기로 물을 계속 순환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 물때·세균·미생물 등 오염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고인 물을 없앴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선보인 '무풍에어컨'과 '블루스카이'에 IoT와 AI 기술을 탑재했다. IoT 기술인 '스마트 홈' 기능은 스마트폰을 통해 실내의 어디서든 제품 조작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무풍에어컨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 생활 환경을 학습해 최적 온도로 자동 제어하는 개인 맞춤형 기능을 추가했다. 이 제품은 집안의 온도·습도와 같은 환경 데이터 변화에 따라 사용자가 어떻게 에어컨을 조절하는지를 학습해 '스마트 쾌적' 모드 등의 자동 냉방 운전을 실행한다. 또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의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조치하는 차별화된 원격진단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최대 실적에도 마냥 웃지 못하는 삼성전자

지난해 30조 원에 육박하는 흑자로 3년 만에 최대 이익을 거둔 삼성전자의 콘퍼런스콜은 장밋빛 전망만 있지 않았다. 올해 40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이 예고되고 있음에도, 특급 수사에 따른 경영 차질을 우려하는 경영진의 목소리가 담겼다. 그간 특급 수사와 관련해 공개적인 논평이나 견해 표명을 자제해온 삼성의 행보를 볼 때, 이날 발언은 이례적이다. 삼성전자는 실적 참고자료를 통해

"대내외 정세 변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 아래 인수·합병(M&A) 및 시설투자 결정과 신성장동력 발굴 차질 등 중장기 사업 추진 전략에 있어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콘퍼런스콜에서는 더 직접적인 언급이 나왔다. 이명진 삼성전자 IR팀 전무는 최근 특급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기적인 차원에서 사업 영향을 가능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장기적으

로 봤을 때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최고경영진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특급 수사로) 제한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M&A와 신성장동력 발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투자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통상 삼성전자는 1월 하순 열리는 전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새해 투자 계획을 밝혔다. 정확한 투자 액수를

정세 변화·특급 수사 등 불확실성 고조
콘퍼런스콜서 "어려움 예상된다" 밝혀
올해 투자 세부계획도 아직 세우지 못해

공개하지는 않아도 "작년과 같은 수준" 혹은 "작년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라며 대략적인 수준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엔 "시설 투자 규모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로 인사도 연기한 상황에서 신규 투자 등을 확정 짓기 쉽지 않다"며 "과거에 결정된 투자 사항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영록 기자 syr@

LG '웃고' 삼성 '울고'... 희비 엇갈린 전자 부품사

삼성전기 지난해 4분기 적자전환
삼성SDI는 연간 누적적자 1조
LG이노텍 영업이익 1178억원 '최대'
LGD도 4년 연속 영업이익 1조 돌파

지만, LG 부품사들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25일 업계 실적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 약재에도 반도체 사업 호조에 따라 지난해 4분기 9조 2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삼성SDI와 삼성전기는 적자를 기록했다. 소형전지 사업에 직격탄을 맞은 삼성SDI는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580억 원

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1조 원에 달하는 9263억 원의 적자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전기차에 공급되는 원통형 배터리도 판매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줬다. 카메라 모듈 등을 공급하는 삼성전기도 4분기 적자 전환했다. 매출은 1조 34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지만, 46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라 고부가 부품 판매 감소와 평가 인하 등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LG 부품사들은 4분기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LG이노텍은 지난해 4분기 매출 2조546억 원, 영업이익 1178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애플에 듀얼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는 광학 솔루션 부문이 호실적을 견인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LG디스플레이도 4년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4분기 매출 7조9360억 원, 영업이익 9043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이 1392% 급증했다. 계절적 성수기와 함께 전반적인 패널 가격 상승세, 환율 상승, 차별화된 제품군 운영 등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삼성과 LG의 주력 부품 계열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에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 부품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했

800억 투자 드디어 빛보는 E1

2014년 美 셰일가스 미드스트림 업체 '카디널' 지분 투자
트럼프 행정부 '셰일가스 확대' 에너지 정책에 수혜 전망

E1의 800억 원 투자가 드디어 빛을 볼 전망이다. E1이 2014년 투자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디널가스서비스(Cardinal Gas Services)'가 저유가로 그간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일(현지시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우선 에너지 정책(America First Energy Plan)'을 발표하며 "50조 달러(약 5경8325조 원) 가치로 추정되는 셰일가스과 천연가스, 미국산 원유 등을 적극 시추하고 미국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셰일가스 생산 확대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에너지 업계에서는 셰일가스 미드스트림 업체에 투자한 E1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4년 E1은 삼천리 자산운용이 결성한 펀드와 공동으로 미국 카디널가스서비스의 지분 34%를 취득, 미국 셰일가스 미드스트림 사업에 진출했다. 카디널가스서비스는 오하이오주 유타카 셰일 가스전 내 70만 에이커(약 2832㎢)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미국 카디널가스서비스의 가스 운송 파이프라인 전경. 사진제공 삼천리

셰일가스 미드스트림은 생산된 가스를 처리시설로 운송 및 판매하는 과정의 사업이다. '생산-포집-처리-운반-수출'이라는 밸류체인에 의해 셰일가스 생산량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이익과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 E1 관계자는 "카디널가스서비스 지분 취득 후 국제유가가 2015년 중반부터 하락세를 지속해 업황이 좋지 못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발표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면서 "미국 현지법인인 E1아메리카와 카디널가스서비스를 통해 향후 북미 셰일가스 관련 추가 사업 기회 발굴과 정보 탐색은 물론, 셰일가스 업체들과의 정보 공유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SM상선 3월 출범 문제없다"

김칠봉 사장 "철저한 원가분석 통해 저운임 추구하지 않을 것"

한진해운 미주-아시아노선을 인수한 SM(삼라마이티스)그룹의 신규 컨테이너 선사 SM상선이 오는 3월 출범을 앞두고 서비스 개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M상선은 올해 65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선박 12척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부산항에서 처리할 컨테이너 물량당 목표를 25만TEU로 제시했다. 25일 김칠봉 사장은 SM상선의 3월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3월 중 서비스 시작이 전혀 문제가 없고,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SM상선이 저가운임 영업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SM상선이 화주와 시장에 운임을 공식적으로 제공한 적이 없다"면서 "SM상선은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운임을 제공할 방침"으로, 시장에 역행하는 저운임 정책은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실패한 중소형 컨테이너 선사와

도 비교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SM상선은 40년의 해운 경험과 28년의 미주 서비스 경험을 가진 한진해운의 시스템과 인력, 영업 노하우가 승계된 회사"라며 "화주 기만이 미약하고 미주 서비스 경험이 없는 신생회사와는 시작부터 다르다"고 강조했다. SM상선은 올해 6500TEU급 선박 12척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내년에 21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 사장은 "우선 12척으로 미주노선 1개와 아시아노선 8개를 운항하고, 내년에는 21척으로 늘려 미주노선을 2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주노선은 4월부터, 아시아노선은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정 기자 mik@



황창규 연임 유력... '우선심사' 논란은 부담

시추위, 설 연휴 전 심사 마무리

황창규(사진) KT 회장의 연임이 유력한 가운데 '우선심사' 논란이 추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KT 새 노조와 일부 정차권에서 KT CEO(사이오) 추천위원회에서 황 회장을 우선심사하는 것은 정관이 없는 기행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2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전 시추위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연임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시추위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황 회장 연임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이석재 회장이 연임할 당시 시추위의 심사 기간이 열흘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26일을 전후해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 유력하다. KT 내부에선 3월 이사회가 열리는 선임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심사결과 발표가 늦어질수록 다른 CEO를 선임하기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시추위는 황 회장 연임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선심사와 관련한 정관 무유, 매출 부풀리기,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의 법률 조인을 맡은 정동하 변호사의 KT 사외 이사 재직 의혹 등은 연임 결정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과 새 노조는 현 CEO가 연임 의사를 밝혔을 때 시추위가 우선 심사를 한다는 정관이 근거가 없다며 황 회장의 연임 심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KT 측은 현재 매출 부풀리기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힌 상태고 우선심사와 사외이사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KT 측은 "정관에는 관련된 사항을 시추위 내부 규정에 의거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CEO추천 세부 규정들은 일일이 반영하지 않고 있는 노조와 정차권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일 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김병근 기자 nova@

황창규(사진) KT 회장의 연임이 유력한 가운데 '우선심사' 논란이 추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KT 새 노조와 일부 정차권에서 KT CEO(사이오) 추천위원회에서 황 회장을 우선심사하는 것은 정관이 없는 기행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반도체에 돈 쏟아붓는 中... 한국 '메모리' 독주 장담 못 한다

中 '반도체 굴기' 태풍의 눈

83조 원. 중국 국영기업 칭화유니그룹이 발표한 메모리 반도체 투자 규모다.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 태풍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칭화유니그룹은 700억 달러(약 82조 원)를 투자해 3개 반도체 라인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난징에는 3D 낸드플래시와 D램 공장을 건설해 매월 웨이퍼 10만 장의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더불어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인 XMC는 지난해 3월 후난에 240억 달러(약 28조 원)짜리 메모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데이터 저장에 쓰이는 3D 낸드플래시와 데이터 처리에 활용되는 D램은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들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설비투자 13조2000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칭화유니그룹은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연간 투자액보다 6배 이상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2014년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1조 위안(약 171조 원)을 쏟아부어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겠다

칭화유니그룹, 총 83조원 투입해 中 난징에 3D 낸드·D램 공장 등 3개 메모리 반도체 라인 설립키로 삼성 연간 설비투자액 '6배' 수준 낸드 5년·D램 7년 기술격차에도 압도적 투자... 추격은 시간 문제

다"며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후 전문학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수출의 버팀목 격인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맹추격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고속 성장을 위해 외국에서 기술을 확보하려 하지만, 점점 미국 등 외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투자를 경계하는데 반도체는 아직 미국 내에서 제조되는 경쟁력 있는 소수 산업 가운데 하나인 탓이다. 실제로 2015년 이후 미국의 마이크로폰과 샌드스크를 차례로 넘겼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중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미국의 견제 때문이다.

이에 중국은 자체 투자로 방향을 선회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일단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한다는 '선투자, 후개발' 전략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론적으로 낸드플래시는 5년, D램 시장은 7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다"며 "하지만 투자 규모와 속도를 감안하면 실제 추격 시간은 훨씬 줄어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 공정기술을 제대로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시장 진출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메모리 시장보다 규모가 큰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앞서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2015년 기준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2670억 달러(약 314조 원) 규모로, 메모리 시장 807억 달러의 세 배가 넘는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회사 수는 중국이 우리보다 10배나 많다. 시장조사기관 트랜드포스에 따르면 2015년만 해도 736개에 불과하던 중국 팹리스 업체는 지난해 1362개로 늘었다. 한국 팹리스 업체는 최근 수년 사이 150개 안팎에 머물러 있다.

송영록 기자 syr@



4차 산업혁명... 새로운 경쟁의 서막

SSD 수요 늘며 고성능 반도체 시장 급성장... 선두업체 R&D 투자 강화

4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오르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신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등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다량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첨단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차세대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면서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AI 산업 등의 수요 확대로 서버용 SSD 수요는 연평균 16% 증가해 2020년 3000만 대로 전망된다. 서버용 SSD의 수요 증가는 전체 낸드 플래시의 수요도 이끌어 2020년까지 낸드 플래시 수요는 연평균 39% 증가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을 엿볼 수 있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2030년 87억 달러(약 10조 원)까지 급성장할 전망이다. 맥킨지에 따르면 3년 뒤인 2020년만 해도 선진국에 판매되는 신형 자동차 중 자율주행차의 비중이

90%까지 육박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차의 차량 대 차량(V2V) 모듈, 빅데이터 등의 저장을 위해선 256GB 낸드 플래시를 탑재해야 한다. V2I(차량 대 인프라) 모듈 등의 대중화가 이뤄지면 이 용량마저도 턱없이 부족해진다.

이에 따라 반도체 분야 선두 기업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일본 도시바 등이 시설, 연구 개발(R&D)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반도체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2015년 이후 칭화유니그룹과 UMC, TSMC 등 중화권 업체들이 중국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금액은 총 1120억 달러(약 131조 원)에 달한다.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 투자에 적극적인 이유는 중국 내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를 국산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연간 반도체 수입 규모는 2300억 달러(약 270조 원)에 달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자체적인 반도체 조달을 위해 자국 업체들을 앞세워 인수·합병(M&A) 및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편선 '2차 치킨게임' 재현되나 우려도

2000년대 중반 D램 제조사 간 가격경쟁 심화 獨기몬다 파산... 日엘피다, 마이크로에 흡수 中정부 반도체 굴기에 '제살 깎기' 반복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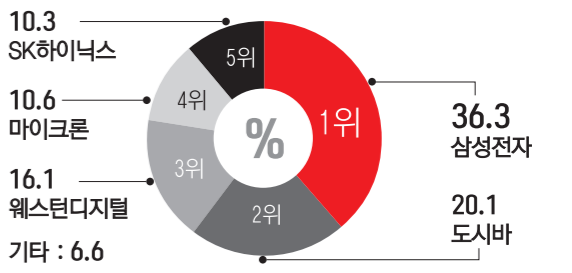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중국발(發) 대규모 투자로 인해 '2차 치킨게임'이 불붙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생태계를 주도했던 미국·한국·일본 등이 대규모 시설 확장과 투자, 인수·합병(M&A)에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반도체 굴기'를 기지로 내건 중국이 정부를 등에 업고 추격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치킨게임이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이판사판'의 극단적인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과거 일본 엘피다와 미국 마이크로, 독일 인피니온, 대만 이노테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제 살 깎아 먹기 식의 가격 경쟁을 펼쳤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무서운 경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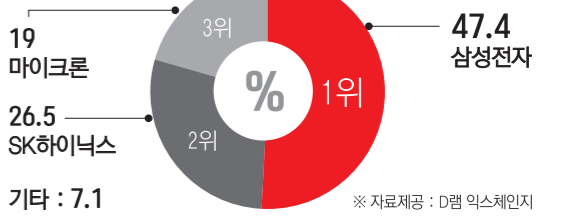
D램은 기술력과 설비를 높이는 데 전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수조 원의 돈을 투입한 업체들이 기술력과 설비를 갖추기 시작했고, 막대한 공급량은 D램 가격 하락의 주범으로 작용했다. 공급 과잉으로 수익이 나던 D램이 적자로 돌아서며 2008년 3분기 세계 최대 D램 업체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0%가 됐다. 하이닉스는 -28%, 마이크로 -35%, 이노테라는 -39%를 각각 기록했다.

양보 없는 경쟁이 지속되며 그 다음 분기 삼성전자도 -14%라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대만 난야의 경우 -105%까지 늘어났다.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팔았다는 의미다. 이듬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치킨게임의 패자가 속속 나오기 시

2016년 3분기 낸드플래시 세계 시장 점유율 (단위 : %)



2016년 3분기 D램 세계 시장 점유율



작했다. 2009년 1월 독일 반도체회사 키몬다가 파산했고, 2월에는 일본 최대 메모리기업 엘피다가 공적자금을 요청했다. 히타치 반도체를 모태로 한 엘피다는 결국 간판을 내리고 미국 마이크로에 흡수됐다. 반면, 승자가 된 삼성전자는 이후 시장 점유율을 40%에서 50% 초·중반까지 끌어올렸고, 하이닉스 역시 이후 반등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다.

메모리 반도체 역사는 파워 게임에서 지면 무대에서 사라지는 '퇴출의 역사'에 가깝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수십 개 기업이 난립했던 메모리 시장에는 세계 전자업계를 호령했던 대부분의 기업이 떠나고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로, 도시바, 샌드스크 등 5~6개의 대형 기업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유현 기자 yhssoo@

달콤한 금융혁신플랫폼 위비플랫폼

- 위비뱅크**: 광안인증서 필요없는 송금부터 간편한 대출, 환전까지 누구에게나 쉬운 모바일 전문은행
- 위비톡**: 귀찮을 평메시지, 게임 여행, 맛집/카페/극장 등 즐거움이 가득한 모바일 메신저
- 위비멤버스**: 우리은행, 우리카드 포인트를 하나로 모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통합멤버십 서비스
- 위비마켓**: 우수중소기업 상품에 여행, 금융, 보험까지 찾아볼 수 있는 최첨단 온라인 마켓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99-5000, 1588-5000 /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



수천년을 이어 온 올리브잎의 생명력과 영양 “올레아에 담았습니다”

**올레아는 올리브잎을 주원료로 만든
아주약품의 건강식품브랜드입니다**

건조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으로부터 수천년이 넘게 강력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생명의 나무 올리브, 미생물과 세균으로부터 올리브나무를 방어하는 천연물질 올리유리핀 성분 때문인것으로 알려졌으며, 올리브잎에는 올리브오일 보다 몸에 좋은 올리유리핀이 50배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레아는 수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입증된 올리유리핀의 과학적 효능을 바탕으로 **최상급의 올리브잎만을 엄선하여 63년 역사 아주약품의 품질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olea

아주약품 올리브잎 전문 건강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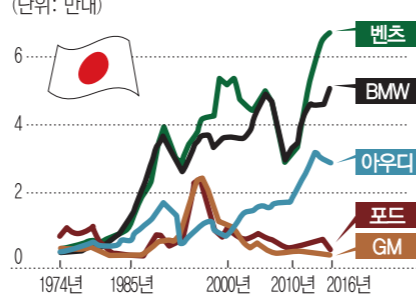
트럼프 옥죄기에 뚝뚝 뭉치는 日 정·재계

“70년대 무역전쟁 재현될라” 새 무역협정 대비 조직 출범
총대 멘 도요타, 인디애나 공장 6억 달러 투자 증설키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표적이 된 일본 정·재계가 뚝뚝 뭉쳐 본격 대응에 나섰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 가능성을 예견해 통상협상 총괄 조직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일본 산업계의 간판인 도요타자동차가 미국 인디애나 공장에 6억 달러(약 7017억 원)를 투자해 생산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일본을 지목해 무역이 불공평하다고 비판하자 상황이 다급해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 간 자유 무역협정(FTA) 협상이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TPP 대책 본부를 개편하고 TPP와 함께 대미 협상

과 유럽연합(EU)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등 통상협상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을 설립해 대응키로 했다. 다만 일본은 자동차 협상과 양자 간 FTA 협상은 분리해 대응할 방침이다. 미국과 FTA 협상을 하면 농산물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당할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연간 약 7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를 문제 삼고 있다. 이 중 자동차 분야의 대일 무역 적자는 전체의 약 70%다. 트럼프가 전날 기업 경영자들과의 조찬 회동에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불공정 무역을 지적한 것도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이었던 셈이다. 트럼프의 보호주의에 전 세계가 불안에 떠는 가운데 일본이 특히 예민하게 나오는 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일본 내 수입차 판매 대수 추이 (단위: 만대)



일본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미국과 심한 무역마찰을 경험했다. 당시 오일쇼크와 달러 강세의 여파로 미국 시장에서 수입차들이 판을 치자, 미국 자동차 대기업 3사가 '일본 위협론'에 불을 붙였다. 1980년 강성인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통상법 201조'에 근거해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일본차 수입 제한을 요구하고 나서자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보호주의색이 짙은 자동차산업 재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미 수출 물량을 연 168만 대로 제한하는 수출자율규제 조

치를 결정했다. 1984년 도요타와 제너럴 모터스(GM)가 합작 설립한 NUMMI(누미) 공장은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일본은 친일파인 윌버 로스가 상무장관에 지명되면서 미일 무역 마찰의 완충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완전히 빛나지 못했다. 이번에도 도요타가 총대를 메게 됐다. 도요타는 24일 6억 달러를 들여 미국 인디애나 공장의 연간 생산력을 5만 대가량 확대하고, 400명도 추가로 고용하기로 했다. 현재 도요타는 이 공장에서 5000명을 고용하고, 40만 대의 생산력을 갖췄는데, 여기서 더욱 확대한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는 취임 전인 5월, 도요타의 멕시코 투자를 비판했다. 그러자 도요타는 나흘 뒤인 9일에 향후 5년간 미국에서 10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인디애나 공장 투자 발표는 이 계획의 일환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AP연합

英대법 “브렉시트 협상 전 의회승인 받아라” 메이 ‘EU 완전결별’ 일정 차질

“법적으로 의회만 결정 가능”
제1야당 노동당 반대표 던질듯

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24일(현지시간) 판결했다. EU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한 테리사 메이의 '하드 브렉시트'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대법원은 찬성 8, 반대 3의 결정으로 정부가 EU에 브렉시트를 통보하기 전에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없다고 확인한 셈이다. 데이비드 뉴버거 대법원은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의미는 매우 무겁지만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며 "브렉시트 협상 발동 권한은 총리가 아닌 의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수일 내에 의회에 협상 승인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3월 말까지

리스본 조약 50조가 통과되도록 의원과 협력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투표에서 제1 야당인 노동당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노동당의 벤 브래드쇼 의원은 주요 수출품의 절반가량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농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판결 직후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50조 발동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노동자를 사회·경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들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빈 대표가 국민투표 결정을 존중하고 있고, 집권 보수당의 의석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2월 중순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절차 개시 승인안을 신속처리(fast-track)법안으로 27일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FT는 하원이 이르른 내주 법안 논의를 시작해 2월 중 표결을 벌이고 상원은 2월 말께 법안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車 빅3 투자계획 성에 안 찬 트럼프 “새 공장 지어라”

“美 우선주의 안따르면 불이익”
총 36억달러 투자에도 “더 많이”
연비 규제 완화 장려 정책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기업들이 불모가 되고 있다. 트럼프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업체 빅3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의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조찬 회동에서 미국에 새 공장을 건설할 것을 압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회동에서 앞서 트위터에 “나는 여기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신공장을 이곳에 건설하기를 원한다”는 트윗을 남겼으며 회동이 끝난 후 “자동차업계 리더들과 훌륭한 미팅을 했다. 다 함께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동에서 “미국에서 사업하기를 원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프로세스를 훨씬 더 간소화할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 신조를 따르지 않는 기업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단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했다. 자동차업체들에 미국에 신공장을 건설하라고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미국 시장은 7년간의 중단 없는 성장 이후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 또 자동차 빅3는 GM과 크라이슬러의 부도를 거치면서 미국 내 오래된 공장을 폐쇄하는 데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통령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 제너럴모터스(GM) 등 미 자동차 3사 최고경영자와 면담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트럼프 대통령, 마크 필즈 포드 사장 겸 CEO, 세르조 마르키오네 CEO. 연합뉴스

거 승리 이후 자동차업체들을 강하게 압박해 포드는 16억 달러(약 1조8664억 원) 규모 멕시코 신공장 건설 계획을 폐지하고 기존 미국 공장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GM과 피아트크라이슬러도 최근 각각 미국 공장에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빅3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도 트럼프는 여전히 성에 안 찬 듯다. 이번 CEO들을 불러 공장 건설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촉구한 것이다.

바클레이스의 브라이언 존슨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기업의 미국 공장 건설 확대를 장려하고자 현재의 엄격한 연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 20만~4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경제전문 매체 CNN머니는 그동안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상당한 고용을 창출한 것은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 نيسان 혼다 독일 폴크스바겐과 BMW

등 외국 업체들이었다며 트럼프가 이들을 푸대접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도요타는 미국 인디애나주 공장 투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취임 이후 미국 기업 CEO들과만 잇따라 만나고 있지만 향후 외국 기업으로 범위를 넓혀 이들도 신공장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오바마 레거시’ 지우는 트럼프... 환경파괴 논란 송유관 빗장 열어

키스톤·다코타 재협상 행정명령에 서명... “미국산 철강 써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의 '레거시(유산)' 지우기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24일(현지시간) 오바마 전 대통령이 환경 파괴를 우려해 중단시켰던 키스톤 XL 송유관과 다코타 대형 송유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대통령 지침(Presidential Memoranda)'에 서명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두 개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키스톤 XL과

다코타 프로젝트는 미국 제조업에서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직접 파이프를 만들 것"이라며 송유관에 반드시 미국산 철강을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수년간 송유관은 화석연료산업과 환경보호주의자들의 광범위한 전쟁의 상징물로 부상했다. 키스톤 XL은 그 논란의 정점에 섰던 프로젝트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 회담 참석을 앞두고 이를 불허했다.

80억 달러(약 9조3300억 원) 규모의 키스톤 프로젝트는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생산된 셰일유를 미국의 정유단지인 운반하도록 설계됐다. 셰일유는 일반적인 석유·가스전에 비해 원유 추출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도 그만큼 많아진다. 다코타 대형 송유관은 공정이 이미 92% 이상 완료된 상태이나 미주리 저수지 335m 구간 건설을 앞두고 인디언 문화유적 훼손과 식수원 오염을 우려한 항의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 오바마가 지난해 말 이 프로젝트에도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도 “승인은

우리가 협상할 조건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트럼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오바마에게 폐지 수순을 밟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TPP와 오바마에게 모두 오바마의 핵심 레거시로 간주되던 것들이다. 다만 키스톤과 다코타 프로젝트 모두 인디언과 목축업자, 농민, 환경운동가들의 시위와 법적 행동에 직면하고 트럼프가 미국산 철강을 써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걸면서 실제 승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中 샤오미, 스마트폰 인도서 대박 ‘홍미노트4’ 10분새 25만대 팔아

성장둔화 고전... “새 시장 찾아”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가 '홍미노트4(사진)'로 인도에서 대박을 냈다. 샤오미 측은 “역사상 가장 빠른 스마트폰 판매”라고 자평했다고 24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샤오미는 인도에서 자체 웹사이트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10분 만에 홍미노트4를 25만 대 판매했다. 지난해 홍미노트3 모델의 연간 판매 규모가 360만 대였음을 고려하면 놀라운 속도다. 동시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로 고전하고 있는 샤오미가 인도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도에서 매출 대박을 낸 홍미노트4는 5.5인치 크기의 스크린과 13메가픽셀의 카메라를 자랑한다. 또한 홍미노트3에 비해 전반적인 성능이 62% 향상되었고, 소비 전력은 30% 줄었다고 샤오미 측은 홍보했다. 샤오미는 그동안 중국 외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라 안간힘을 썼다. 중국에서의 성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샤오미의 레이첼 창업자는 이달 초 “회사가 너무 빠른 성장을 이뤘다”고 인정할 바 있다. 2014년까지 샤오미는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지만 2015년 이후 중저가 브랜드인 오포와 비보에 밀려 고전했다. 또 다른 경쟁사



인 화웨이는 고급 제품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했다. 고전에 허덕이는 샤오미는 지난해 스마트폰 판매량을 밝히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이에 지난해 매출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성장 정체를 겪고 있다는 해석이 분분했다. 경쟁 업체에 지어던 샤오미는 최근 신규 시장에서 매출 대박을 낸 홍미노트4를 바라 부사장의 사업 소식으로 침체된 분위기가 가중됐다. 구글 임원이던 바라 부사장은 2013년 샤오미에 합류해 샤오미를 국제무대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그는 “과중한 업무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내가 집에 돌아가기에 좋은 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밝혔다. 그는 2월 시작하고 나서 미국 실리콘밸리로 돌아갈 예정이다. 올랐던 샤오미에 인도 시장에서 매출 대박은 희소식으로 작용했다. 샤오미에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인도에서 연 매출은 10억 달러(약 1조1600억 원), 시장 점유율은 9%에 달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웅진코웨이 '멀티순환 공기청정기 AP-1516D'

항사 및 새집·현집 증후군부터 맞춤형 필터까지 깐깐하게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기청정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약 6000억 원 규모로 급격히 증대했다. 중국발 항사를 비롯해 미세먼지, 환경오염 문제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기청정기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공기청정기 시장 확대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확대와 발맞춰 소비자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 업체들

은 공기청정기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라이프케어기업 코웨이가 최근 출시한 공기청정기 'AP-1516D'는 각 가정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멀티순환·집중순환·일반순환 등 총 3가지 순환기능과 맞춤형 필터시스템으로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화된 깨끗한 공기가 나오는 공기 토출구가 제품 상부에만 있던 기존 공기청정기와는 달리 제품 전면과 상부에서 정화된 공기를 내보내기 때문에 가족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실 등 멀리 떨

어진 넓은 공간까지 빠른 청정이 가능해졌다. 맞춤형 필터도 업그레이드됐다. 항사·새집 증후군·현집 증후군 필터를 제공하던 기존 제품에서 반려동물에 특화된 '알레르겐 맞춤형 필터'까지 추가해 계절, 환경뿐 아니라 공간까지 고려한 더욱 깐깐해진 맞춤 공기 관리를 제공한다. 제품은 벽면에 밀착 가능한 슬림한 타워형 디자인을 채택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세련된 화이트 색상을 적용해 인테리어 가구로도 인정맞춤이다. 렌탈로 구입 시 월 렌탈료는 3만 7900원(등특비 10만 원 기준)이며, 일시불 판매가



코웨이 '멀티순환 공기청정기 AP-1516D'.

는 89만 원이다. 박용주 코웨이 마케팅본부장은 "이 제품은 혁신적인 멀티 순환 기능을 적용해 가까운 곳은 물론 멀리 떨어진 공간까지 신속하고 강력한 공기 관리가 가능하다"며 "타사 공기청정기와 차별화된 기능을 앞세워 공기청정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ℓ당 최대 100원 유가보조금 지원



삼성카드사는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화물복지 삼성카드'를 최근 새롭게 출시했다. 정부 바우처 사업 중 하나인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다.

화물복지카드사는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화물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유류구매카드다.

유가보조금은 결제일 할인 방식으로 적용된다. 주유소 및 LPG충전소에서 사업용 화물차 최대적재량에 따라 유가보조금은 차등 지원된다.

화물복지 삼성카드는 화물차 운전자를 위해 S-OIL과 GS칼텍스 2개 정유사에서 각각 할인과 적립 등 리터(ℓ당 최대 100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유류구매카드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345.54원 할인 혜택을 더하면 화물복지 삼성카드를 발급받은 화물차 운전자는 전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리터당 최대 445.54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월 신용카드 이용금액 관계없이 S-OIL에서는 리터당 45원, GS칼텍스에서는 리터당 4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리터당 최대 S-OIL은 55원, GS칼텍스는 60원의 결제일 할인 혜택을 5000리터까지 추가 제공한다.

이밖에 화물복지 삼성카드는 고속도로 통행이 많은 화물차 특성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카드 이용 실적 30만 원 이상일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부가세 환급 편의 지원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연회비는 무료이며 삼성카드 홈페이지, 대표전화, 전국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 등에 신청할 수 있다.

Home plus 홈플러스 파주운점점

2030 젊은 맘 타깃 패션브랜드 'F2F' 첫 로드숍 눈길

홈플러스가 선보인 패션 브랜드 F2F의 첫 번째 브랜드숍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파주운점점에 오픈한 F2F 브랜드숍은 기존 대형마트 계산대 밖에 별도 독립 매장으로 구성된 로드숍 개념으로 홈플러스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였다. F2F는 홈플러스의 자체 패션 브랜드로서 패밀리 라이프 스타일 웨어(Family Life Style Wear) 콘셉트로 온 가족이 집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아이템과 스토리가 담겨 있다. 홈플러스 측은 자사 패션 브랜드 F2F를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효율뿐 아니라 핵심 상품의 라인지 집중을 비롯해 쇼핑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자 고객 동선과 휴식 공간 확보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20-30대 젊은 엄마들을 타깃으로 했다. 또 가정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의류 콘셉트에 맞게 셔츠, 드레스를, 주방, 거실 등의 스토리를 담은 테마존으로 구성했다. 무엇보다 파주 운정지구에 파주 전체 어린이집과 일반 사설학원이 밀집해 있는 점을 고려해 10대 이하의 자녀를 둔 고객층을 위해 아동복을 매

장 입구 전면에 배치했다. 기존의 의류 매장은 여성복이 매장 입구에 주로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과감한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 의류존은 디즈니 캐릭터와 함께 다양한 장난감으로 꾸며 편안한 아이방을 연상케 하고, 계산을 위한 카운터는 주방을 테마로, 매장 중앙은 거실을 테마로 온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소파를 비롯해 집지와 장난감 등을 준비해 두었다. 이는 실제로 고객들이 쇼핑하다 잠



홈플러스 패션브랜드 F2F는 파주운점점에 기존 매장 안에서 운영하던 것과 달리 별도 독립 매장인 브랜드숍을 운영하고 있다.

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도 사용된다. 이 밖에도 F2F 브랜드숍에는 전용 쇼핑백 제공은 물론 매장 외벽에는 디지털 스크린을 설치했다.

홈플러스 패션마케팅팀 황동호 팀장은 "앞으로도 F2F 브랜드를 가성비 높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리모델링 점포를 위주로 F2F 브랜드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Maeil 매일우유 '저지방 & 고칼슘 2%'

지방함량 낮추고 칼슘 높이고...한국인 식습관 고려

겨울방학 중인 아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가오는 신학기 키 성장을 위해 매일유업은 '저지방&고칼슘 2%'를 추천한다.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기는 칼슘 축적과 뼈 성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로, 충분한 칼슘 섭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매일유업 '저지방&고칼슘 2%'는 고열량 음식 섭취가 많은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해 지방함량은 낮추고 칼슘함량은 일반우유 대비 2배로 강화한 제품이다. 이 제품의 한 컵(200ml)에는 칼슘

440mg이 들어 있어 하루 2잔 섭취 시 어린이, 청소년의 일일 칼슘 권장 섭취량인 700-1000mg을 충족할 수 있다. 단백질 등 우유 본연의 영양성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소한 풍미를 최대한 살린 것이 특징이다. 이에 일반 우유가 익숙한 사람도 거부감 없이 맛있게 마실 수 있어 저지방 우유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다.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르면, 6세부터 18세까지 일 평균 850mg의 칼슘 섭취를 권장

하고 있다. 특히 12-14세 남자는 하루 1000mg으로 생애 주기 중 가장 많은 양의 칼슘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칼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약 50%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 충분한 칼슘 섭취를 위한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칼슘이 풍부한 우유는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우유에는 칼슘뿐 아니라 단



매일우유 저지방&고칼슘 2% 제품.

백질과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준다. 이에 칼슘 함량은 높이고, 낮은 지방함량으로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도울 수 있는 저지방 우유 섭취를 추천한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잘 활용하여 자녀에게 칼슘은 강화하고 지방 함량을 낮춰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는 저지방 우유 섭취 습관을 형성해주면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해킹' 벌을 줄까 보답할까, 트럼프의 고민



조광동

재미 언론인



도널드 트럼프가 1월 20일 마침내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60여 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취임식에 불참하고, 취임식 다음 날 워싱턴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백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여권운동과 반트럼프 시위를 하는 가운데 취임한 트럼프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낮은 지지율과 무거운 짐을 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슬로건으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분열된 미국을 치유하는 것을 비롯해, 스오마마 케어 건강보험을 폐기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대체하는 일, 스불법 체류자 추방, 스메시코 국경선에 담을 쌓는 일, 스ISIS와의 전쟁, 스직업 창출, 스세제 개혁, 스무역 및 대외정책 변경 등 선거운동 기간에 공약한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해야 하는 중요성 못지않게, 어쩌면 가장 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러시아와의 매듭을 푸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수년 전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불거진 미국과 러시아의 불화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가 이메일 해킹을 통해 미국 대선에 불법 개입한 뒤 더욱 깊어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막판에 러시아 외교관을 대거 추방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 수를 닦는 데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러시아의 이메일 해킹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따라 민권운동을 했던 존 루이스 하원의원이 NBC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이메일을 해킹해 트럼프의 선거를 도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대통령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트럼프가 트위터에 "루이스를 공격하고 여기에 분개한 민주당 의원들이 루이스와 연대감을 표시하기 위해 취임식에 불참한 것입니다."

이메일 해킹이 큰 파문을 일으킬 것을 계산하지 않았을 리 없는 러시아가 이것을 감안하고 해킹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그만큼 절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소련의 영화를 꿈꾸는 푸틴으로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계 무대에서 정치적 힘도 약화한 마당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수월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푸틴을 높게 평가하고 푸틴과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이 정치적 자산이라고 말하는 트럼프는 러시아 해킹이 없었으면 거리낌 없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파격적으로 밀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해킹의 주범이라는 것을 시인한 이상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의회가 이것을 용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존 매케인이나 린지 그레이엄 같은 공화당 상원의원도 앞장서서 러시아 해킹 사건을 특별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조사팀을 만들어 90일 이내에 사건 내용을 밝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도적으로 힐러리를 지원한 내용, 그리고 민주당 전라가로 CNN 논객인 도나 브라질이 CNN 토론회 질문 내용을 사전에 힐러리에게 전달한 내용 등입니다. 이메일 내용이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은 없지만 힐러리의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특히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의 이탈을 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10여 개 정보기관들이 연합해 이메일 해킹 당사자가 러시아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러시아 배후를 부인해온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은 취임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정보기관 책임자들로부터 비밀문서 브리핑을 받은 트럼프는 더는 러시아의 개입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에 관한 내용은 미국 정보기관이 확인한 내용이 아니고 영국 정보원이 트럼프 반대자들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장을 더욱 크게 한 것은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비밀문서를 언론에 누출한 당사자가 정보기관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이 수법이 나치 시대의 수법과 비슷하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통령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오른팔 역할을 하는 정보기관을 비밀정보의 누출자라고 지목하고 나치 수법을 빗댄 것이 정보기관 당사자들을 분노케 하고 의기를 꺾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지는 존 브래넨 CIA 국장과 트럼프 간에 공개적인 설전이 오가는 전례없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폼페오 CIA 국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과 친해지겠다는 푸틴의 계산? 그러나 일은 꼬이고 '러시아 해킹 주범' 인정한 트럼프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기 힘들어 장애물이 될지, 협상카드 될지...

체제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후 집무 첫날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CIA 본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푸틴과도 인간적 교류가 있는 렉스 틸러스 전 엑스모빌 회장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틸러스 국무장관 지명자가 러시아와 가깝다는 데서 인준 청문회 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ISIS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든 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서둘러 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인 트럼프는 절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서둘러 실마리를 잘못 풀면 골치아픈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취임 초기의 동력을 저해할 수 있고, 러시아 해킹 문제가 오랫동안 발목을 잡는 정치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준 러시아에 어느 정도의 벌을 주고 어떤 방법으로 친구 관계를 맺을지는 정치적 부채와 자산을 함께 절충하는 외교 줄타기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 이메일 해킹은 마라 양국의 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트럼프가 역이용 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가 러시아에 약점을 잡힌 것이 없다면 이메일 해킹이 러시아의 양보를 얻어내는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려 5대 경종의 4비, 8대 현종 어머니 이복숙부와 간통, 사랑인가 야심인가

헌정왕후(獻貞王后) 황보씨(?-992)는 고려 경종의 제4비이자 제8대 왕 현종의 어머니이다. 그녀의 삶은 언니인 현애왕태후(顯愛王后, 경종의 제3비)의 삶과 분리해 말할 수 없다. 두 자매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동지이자 라이벌로서의 극적인 삶을 살았다.

981년 경종이 죽었다. 경종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왕송(뒤의 목종)은 몇몇이라 왕위를 계승할 수 없어 자매의 친오빠인 성종이 즉위하였다. 자매는 고향으로 나가 각기 거주하였다. 어느 날 헌정왕후는 산에 올라가 오줌을 누었는데, 오줌이 흘러 온 나라에 넘치고, 그것이 모두 변하여 은색 바다가 되는 꿈을 꾸었다. 꿈을 치니 왕이 될 아들을 낳겠다 했다. 왕후는 자신이 과부인데 어찌 아들을 낳겠느냐며 믿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배 다른 삼촌인 안종(安宗, 태조와 신라 왕녀 출신 신성왕태후 사이의 아들)이 근처에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주 왕래하다 간통해 임신하게 되었다. 992년 간통 사실이 발각되어 안종은 귀양을 갔고, 왕후는 아들(왕송, 대량원군, 뒤의 현종)을 낳고 죽었다.

이후 성종이 죽고 천추태후의 아들이 목종으로 즉위하였다. 여러 해가 지나도 목종에게 자식이 없자 천추태후는 자신과 김지양이 사통해 낳은 아이로 목종의 후사를 잇고자 했다. 그리하여 헌정왕후의 아들인 대량원군을 종으로 만들어 여러 차례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1009년 대량원군 즉위 쿠데타로 목종은 폐위되고 대량원군이 현종으로 즉위하였다.

두 자매는 과부로 다른 남자와 사통해 아들을 낳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역사에서 천추태후는 천하의 악녀로, 헌정왕후는 순진무구한 사랑의 화신으로 그려져 있다.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 고려사를 보면, 최소한 헌정왕후의 정인(情人)인 안종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대량원군 역시 왕위에 뜻이 있었음은 삼각산 신혈사에서 종으로 있을 때 물었다는 다음의 시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약포(藥圃)에 때 울리고 앉은 작고 작은 저 배암(邨)은 뭍에 붉은 무늬 찬란히 번쩍이네! / 언제나 꽃밭에만 있다고 말하지 말라 / 하루아침 용 되거든 어렵지 않으리니!"

헌정왕후는 정말 안종의 계락을 물렸을까? 아니면 공모자였을까? 성종에게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태조의 손자인 자신의 아들이 꼭 왕위에 오르지 못하면 법도 없다. 부계 모계 공히 태조의 자손인 그녀의 아들은 천추태후의 아들만큼이나 훌륭한 혈통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 똑같이 혼외 자식을 왕위에 올리려 했는데 왜 역사에서 그녀는 자탄받지 않았는가? 천추태후의 아이는 왕이 되지 못했고, 그녀의 아이는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종은 왕위에 오른 뒤 그녀를 효숙(孝肅)왕태후라고 추존하고, 무덤을 원릉(元陵)이라고 하였다.

권순형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 건립추진협의회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STORY 잘나가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다

PART1. 사람이 있는 고생이 행복임을 깨닫는 사람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PART2. 잘 풀리는 인생, 특별한 삶의 노하우

PART3. 철학이 있는 사람들 미디어아트스트 미래성형외과 김종환 원장.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 라이몬드 로이어 센터장, 가제트 솔집 대표 겸 배우 김경범씨, 정신과 의사 나코시 아스쿠미씨

PART4. 인상으로 풀어보는 재미있는 대선 이야기 박정희 해당 인성코치 연구원장

PART5. 신통방통! 운 좋아지는 습관에 도전하다

문화관 탐사기 김수영 문학관

순수시인 김수영, 너른 풀밭에 누워 자유를 외치다

도시 숲을 헤치고 빠른 속도로 버스가 달린다. 희미하게 햇살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짙은 갈색 나무 끝이 파란 하늘 배경으로 흔들흔들, 구름의 속도로 움직인다. 작은 버스정류장에 내려 차갑고 신선한 공기와 마주하며 이정표를 따라 걷는다. 곧 다른 곳은 김수영 문학관. 문체의 자유를 넘어 진정한 자유세계를 위해 끊임없이 저항하고 아파했던 순수시인 김수영의 세계가 구름이 가는 속도만큼 잔잔히 흐른다.

2월의 산책

발길이 닿는 곳, 곧 예술이 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매서운 추위에 앞서자들은 메달렸어도 마음은 따뜻하게 감성은 촉촉하게 보내고 싶다면 미술관 나들이를 추천한다. 전시에 따라 매력이 달라지는 게 미술관이지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전시를 외에도 즐길거리, 볼거리가 풍성하다. 눈 오는 날 방문한다면 미술관 통유리로 바라보는 풍경이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것이다.

신라보가 만난 사람

아직도 간재한 현역 태일러, 여용기 "웃 잘 일으키니 인생이 술술 풀려요"

고도원 아침신문문화재단 이사장의 (절대고독) 절대고독의 강을 건너며 채우는 내면의 아우라

(지금도 라디오 시대) DJ, 그리고 (최유리)의 쇼호스트 최유리의 인생 후반전 지금이 최고의 순간

맞춤형 건강 도시락으로 새해 식단 관리하기

그저 가볍게 한 끼 때우기 식사가 아닌 내 건강상태까지 고려한 맞춤 도시락이라면 어떨까? 물론 가장 중요한 '맛'을 빼놓을 수는 없다. 프리미엄 도시락 전문점 '바버너박스'에서 찾은 맛과 건강, 그리고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계기로 본지 제작에 참여한 김홍관 시니어 인턴기자가 직접 체험하며 맛본 도시락 후기까지 담아냈다.

2월의 맛

이봉규 心治 데이트

16세 연상 남편과의 추억으로 먹고사는 아름다운 미망인 고은아

72세에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또 있을까? 연보라색 머릿결이 눈부신 고은아는 지금도 매력 발산 중이다. 여성의 미를 탐닉할 줄 아는 몇 남성들이라면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몇 초간이라도 멈출 수밖에 없으리라.

동년기자의 페이지

강신영·박미령·최은주·육미숙·박혜경·한정수 동년기자 첫사랑이 생길 날

부치지 못한 편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쓸쓸한 만추의 어느 날 떠나버린 친구에게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정책발언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등대가 전해주는 희망의 불빛

선박의 안전 항해를 돕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무인도에서 등대를 지키는 등대원(항로표지원)들은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애절해진다. 설을 앞두고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찾은 인천 팔미도 등대에서 작년 여름 보았던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1950년 9월 15일 자정이 지난 시각에 팔미도 등대에 상륙작전 개시를 뜻하는 불빛이 밝혀졌고, 연합군은 이 불빛을 매개로 작전에 성공해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다. 절망 속에 있던 대한민국의 미래가 팔미도 등대 불빛을 계기로 희망의 순간으로 바뀐 것이다.



열도, 어청도, 마라도, 독도 등대 등은 영화 기점 무인도서의 감시, 수조점 관리, 불법어업 감시 지원 등 영토 수호의 최전방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홍도, 가덕도, 부도, 거제도 등대에는 기상예보 및 과학연구를 위한 기온, 수온, 풍향, 풍속, 조류, 파고, 염분 등을 측정하는 장비를 설치해 해양관측기지 역할을 겸하고 있다.

또 바다가 가깝고 지형이 높은 곳에 있어 전망이 탁월한 등대의 특징을 활용해 관광 명소로도 변신했다. 등대를 음악화, 사진전 등이 열리는 국민해양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작년 한 해 동안 총 550만 명이 찾은 정도로 인기 있는 관광지로 변모시켰다. 올해에도 등대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등대어원을 만들어 일정한 숫자의 등대를 돌아본 방문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주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어느덧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 인근에 경치 좋은 등대가 있다면 가족과 함께 방문해 낭만을 즐기고, 고향을 찾는 이들의 안전한 귀향길을 위해 명절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항로표지원의 값진 수고에 감사나마 감사를 표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망망대해를 밝히는 등대의 불빛처럼 새해에는 등대의 밝고 좋은 기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신율의 정치편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가 관심거리다. 반 전 총장이 기존 정당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른바 빅텐트론에 입각해 제3세대에서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느냐 하는 부분이 정치권의 관심 사안이다. 그런데 정작 반 전 총장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번 기자들과 '차맥(차킨+맥주)'을 할 때 정당 없이 홀로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 설 연휴 직후에는 모종의 결단을 내릴 것 같은 말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엇그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9명과 만난 자리에서는 제3세대, 그러니까 빅텐트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아직은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런데 반 전 총장이 이렇듯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권력을 나눌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빅텐트? 입당? 반기문의 선택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반기문 전 총장이 이번 대선에서 권력을 나누는 것을 거부한다면 연대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빅텐트를 만들기가 힘들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에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권력을 나눌 의사가 있다면 빅텐트를 만들 수 있고, 빅텐트를 만들면 여러 정치 세력과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어 굳이 특정 정당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반 전 총장이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에도 반 전 총장은 '공부'에 열중했다고 하는데, 이는 반 전 총장이 일단은 홀로 정책을 발표할 마음이 있는 것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만일 반 전 총장이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 정권에 관심을 둔다면 홀로 정책을 입안하려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손학규 전 대표나 정의화 전 의장 등을 먼저 만났어야 했다. 물론 반 전 총장의 이런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월요일에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다. 이달 18~1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7%), 스마트폰 설문(41%), 무선

(32%)·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 전화(90%)·유선 전화(10%) 병행 RDD 및 임의 스마트폰 알림 방법으로 실시한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은 19%로 오히려 빠졌다. 일반적으로 반 전 총장의 귀국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경우 최소 2주 정도의 캠페이션 효과를 누려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지지율을 보면 반 전 총장은 캠페이션 효과도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반 전 총장 자신이 이른바 빅텐트를 만들려고 해도 여의치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빠지기 전에 먼저 빅텐트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제반 정치 세력을 모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지금 정책 개발에 주력하면 지지율 반등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지지율 반등에는 차별한 정책보다는 충격 요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지율이 더 빠지면 정당에 입당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결단을 미루면, 결국 빅텐트도 물 건너가고, 입당도 어려워지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반 전 총장의 행동은 빨라져야 한다. 제때 결단을 내리는 것도 지도자의 중요한 능력이자 덕목이다. 이번 기회에 반 전 총장이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을 듯하다.

오늘의 인물 1월 25일 가네코 후미코

조선 청년을 사랑했던 일본의 무정부주의자

1926년 일본 법정에서 '다이쇼(大正) 일본 왕과 히로히토(裕仁) 왕세자 암살을 꾀한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이 있었다. 독립운동가 박열(1902.2.3~1974.1.17)과, 조선의 독립을 간절히 바랐던 연인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1903.1.25~1926.7.23)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생했지만 무적자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던 가네코는 친할머니, 고모와 함께 충북에서 살던 중 일본 헌병의 총칼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죽어가는 조선인들을 보며 조선의 독립 의지를 확고히 하고 동감했다. 이는 후에 그녀가 무정부주의자의 길로 들어서

는 계기가 됐다. 가네코는 1919년 일본으로 돌아갔으나 어머니가 술집에 팔아넘기려 하자 혼자 도쿄 친척집으로 갔고, 사회주의자들과 만나 교류하며 아나키스트가 됐다. 이때 만난 박열과 동거를 시작했으며 1923년 아나키즘 단체인 불령사(不逞社)를 조직했다. 그해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보호 검속 명목으로 연행됐다.

사형 판결을 받은 그녀는 일본 내에서 시신을 거두 줄 사람이 없어 박열과 육종 결혼식을 올렸지만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며칠 뒤 우쓰노미야 형무소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가네코는 박열의 집안에서

유골을 인수해 경북 문경에 안장함에 따라 현재 박열의 사기념원 옆에 묻혀 있다. 사랑하는 여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던 박열은 해방과 함께 미군에 의해 22년 2개월의 옥살이 끝에 야마다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후 일본 우익교포 단체인 재일조선인거류민단을 조직해 단장을 맡기도 한 그는 1949년 고국 땅을 밟았다가 6·25 때 남북퇴 북안에서 눈을 감았다. 1989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준익 감독의 영화 '박열'은 출연진을 정하고 이달 본격 촬영에 들어갔다.

장대명 편집부 차장 dmjang@

은라인 외곽악골



하이패스 시속 30km 제한 폐지 "통행료는 올리지 마세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도 안전하게 통행료를 낼 수 있도록 하이패스 차로가 넓어진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단차로를 차로 이상으로 확대하는 '다차로 하이패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하이패스가 다차로로 바뀌면 차로 사이 경계선이 사라지고 차로 폭이 넓어져 달리던 차량이 분선과 같은 속도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 구간에서 시속 30

km인 속도 제한도 사라진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대부분은 기존 요금소를 개량해 설치한 탓에 차로 폭이 3~3.5m로 좁아 연간 4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차량 흐름을 개선할 필요성이 큰 요금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네티즌은 "진작에 바꾸지, 매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네", "제발 통행료만 올리지 말지", "속도 줄일 때 불안했는데 다행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ijy0403@

카드로 보는 세상



요즘 젊은 층에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곳 중 하나가 '인형 뽑기방'입니다. 혼자, 혹은 친구나 연인과 함께 가는 '신중 놀이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인형 뽑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돈 드는 취미생활은 먼 얘기고, 대신 소소한 사치로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 좋아했던 인형 캐릭터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나 부담 없이 혼자 놀 수 있는 곳이라는 것도 이들을 잡아끄는 매력입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TuClsl

비거리로 고민 많은 골퍼님들, 대망의 화소식!!

"헤드가 크다"와 "비거리" 상관관계

스윙스팟에서 1cm 벗어나면 20yard 손해 | 헤드가 크면 스윙스팟이 커져서 거리와 방향유리 | 큰 헤드가 유리하므로 계속 커지고 있는 것! 프로골퍼에게 헤드크기를 제한하는 이유도 크면 유리하기 때문.

"드라이버가 가볍다"의 의미

드라이버가 가벼우면 스윙스피드가 증가 | 몸이 무리가 안가며 부상을 방지 | 가벼워도 헤드쪽 원심력을 느끼도록 스윙웨이트를 준다 | 드라이버 무게도 계속 가벼워 지고있는 추세.

"고반발"의 의미

비거리 증가 | 퍼팅한 손맛 | 런 발생 증가

"어드레스가 편하고, 믿음이 간다"의 의미
가볍고, 헤드크고, 짧게 만들어 편하다 | 자신감이 생겨 든든하다.

두배로 넓어진 스윙스팟(sweet spot)면적



"코스가 길게 느껴진다. 드라이버 비거리가 확 줄었다..."
팔순이골퍼의 아픔을 한방에 날려 드립니다.
243g 초초경량, 500cc 초대형헤드, CT310의 초반발력의 도깨비방망이가 당신의 10년전 비거리를 찾아 드립니다.

시타하신 열분 중 아홉 분 이상이 20m이상 차이나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방향성은 물론이구요.

2015 신제품 도깨비드라이버 DGB-500

※ 국제특허 | 벤틀링 방지사프트 | 충격흡수 Wimm 특수그림

유래, 상대, 통쾌한 도깨비드라이버!

힘을 주지않고 부드럽게 치는데도 비거리가 예전대비 10~20m는 늘어났고 원발이 불편한 관계로 주로 손과 어깨를 사용한 스윙이라 고질적인 왼쪽 허리 심했는데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을 하는 것은 상당한 집중력과 감각을 총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편한 드라이버를 만난 저의 기쁨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큼니다. <최규일>

골프 20년, 가장 맘에드는 드라이버!

과거에 T, C, X, N, K 등등 많은 드라이버를 사용해 봤는데 도깨비는 타 기종 대비 가볍고 다루기가 편하며 최소 20m이상 비거리가 증대되더군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악성혹과 스라이스가 완벽하게 없어졌습니다. 라운딩 당 두세개의 OB 때문에 90대에 머물던 스코어가 요즘은 80대중반으로 도깨비드라이버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왕교파>

너무나 개운하고 자랑하고 싶은 라운딩!

Golf is life! 맞는 이야기. 인생의 희노애락이 모두 숨어있는 골프. 슬럼프를 이기고져 도깨비 드라이버와 인연을 시작. 샐럼과 슬럼프의 두려움으로 가득. 결과는 100점 만점에 99점. 수년만에 아우디장식(파 연속4개)거의 파온에 나도 놀람의 연속. 동료를 추켜추켜. 슬럼프 탈출~. 도깨비덕분. 드라이버가 멀리가니 골프가 이리 쉬운걸 ^^ 올해는 도깨비와 함께 춤을... 필드에서... <이쁜이 골퍼>

www.도깨비골프.com 문의 1899-9030

데스크 칼럼

서민물가 상승이 기업책임인가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정책사회부 차장

즐거울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서민들은 요즘 한숨 소리만 나오는 것 같다. 바로 서민물가가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 보기가 무섭다고 한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재래시장을 돌아보지만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지표상 나타나는 저물가만 외쳤지, 서민물가 폭등에는 거의 손을 놓은 것 같다. 최소한 실사대로 국정환란이 가중돼 최근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근색한 소리를 한다.

지난 19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 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물가를 끌어올리는 답답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물가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뉘앙스만 풍겼다.

과연 최근 물가 폭등이 식음료 기업들만의 책임일까. 일각에서는 최소한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정 공백의 틀을 타 주요 기업들이 생활필수품 가격을 올렸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몇 년 동안 정부의 물가 잡기로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한 데다 실적 또한 좋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물론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기습적인 제품 가격 인상은 비난받을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물가 상승은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신동민 산업2부장

책임이 더 크다.

채솟값 폭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통구조의 문제와 후진적 농산물 생산체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정치권의 농민 눈치 보기로 외압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농림축산식품부가 개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올해 예산이 사상 첫 400조 원을 넘어 슈퍼예산 시대가 열려 이것이 물가 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직접세로 400조 원을 걷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접세로 세수를 보충할 수밖에 없다. 간접세 비중이 높아질수록 물가에 반영돼 사실상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을 늘리기보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지자체가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으로 평평 쓰는 예산을 줄이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채 무조건 예산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정부의 물가에 대한 이러한 안일한 대책은 전안법(전 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논란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안법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KC 인증)'을 전기용품뿐 아니라 공산품·생활용품까지 확대해 받아서 공개하는 제도다. 오는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안법은 KC 인증 비용 때문에 공산품과 생활용품 가격 상승을 주도할 수밖에 없어 영세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슬그머니 시행하려던 법안이 전안법 전성 국회의원 189명 명단과 연락처가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부담을 느낀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을 1년 유예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지난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었음에도 이 같은 법 시행을 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가뜰이나 서민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전안법 시행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기 때문이다.

물론 저성장 국면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최근 우리 경제 여력을 보면 고물가는 오히려 스테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현상) 우려만 키울 수 있다.

지표에만 얽매인 탁상행정의 물가대책을 논하기에는 현재 서민물가는 심상치 않다. 훗날 시위가 고물가로 인한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당국은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물가 상승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만 전가하기에는 보는 눈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정치권과 정부당국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lawsdm@

‘금복주 논란’이 주는 교훈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이 있다.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라는 뜻으로,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고사성어다.

대구지역의 대표 소주 제조업체인 금복주는 창사 이래 수십 년간 성장별적 관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성차별적 인사 관행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해 퇴사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금복주는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을 받으며 고용 평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인사규정과 취업규칙도 개정해 승급자격 기준표 등에서 남녀 구분 표시를 삭제하고, 근로자 모집·채용·임금·교육 등 인사 관리 전반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졸 여직원 1명을 4급 주임으로 승진시키고, 파견 여성근로자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고졸 여직원이 4급 주임으로 승진한 것은 금복주 창사 이래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번에는 금복주 직원이 명절마다 하청업체에 상납금을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금복주 관측물을 배부하는 업체 대표 A(여) 씨는 3년



전부터 금복주의 한 직원에게 명절마다 상납금 300만~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고소했다.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금복주는 해당 건에 대해 자체 감사를 받았고, 결국 문제가 된 직원을 사직 처리했다.

이에 대해 금복주 측은 직원 개인 비리로 치부하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다. 물론, 업체 차원에서 하청업체에 상납금을 요구했다고 보아지는 않는다. 다만, 지난해 여성 성차별에 이어 연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직원의 상납금 요구 논란은 기업 이미지를 실추하기에 충분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기업 이미지와 신뢰는 쌓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는 더욱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매순간 정도(正道)경영과 인간존중경영을 중시하는 경영철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헌신의 힘을 쏟아내야만 한다. 반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등을 돌릴 것이고, 기업의 존재 의미는 이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성차별과 직원의 상납금 요구 논란은 비단 금복주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어쩌면 일련의 금복주를 둘러싼 논란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교훈인 셈이다. tearand76@

객석 정도영 사람과 직업 연구소 대표·인텍스루트 코리아 이사 '나이'가 기준이 되는 세상

기자수첩 권태성 기업금융부/tskwon@ 대책 없는 정치테마주

나: "이번에 해외마케팅 쪽 사람을 모집하고 계시죠? 좋은 후보자가 있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기업 담당자: "그래요?" 나: "네, 그런데 연배가 조금 있으세요." 기업 담당자: "몇 살인가요?" 나: "62년생이세요. 하지만 역량도 있으시고..." 기업 담당자: "안 되겠는데요. 저희 이 사람이 63년생이신데요, 45세 이상은 어렵습니다." 익숙한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 허전하고 불쾌감이 엄습해 온다. 기업 내 직급과 연령대의 관계를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원자가 '할 수 있는'지를 묻지도 않고 '몇 살이냐'로 서류 접수조차 하지 않는다. 기업의 채용이 '당신이 우리 회사에 돈을 얼마나 벌여줄 수 있는 지원이냐'를 묻지 않고 '당신이 상관보다 몇 살 어리냐'

가 더 관건이 된다면 아무리 봐도 그다지 합리적이란 느낌은 들지 않는다. 난감하다. 구직을 원하는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 전화를 드린다. 흔쾌히 이해하신다. 이것도 살짝 불편하다. 이미 기업이 사람을 채용할 때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 차별이라는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모집·채용 등에 서의 연령차별 금지), 2009년 3월 22일 시행)이 나온 것이 몇 년 전인데...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에 달했다(통계청, 2016 고령자 통계). 사실상 구직활동에 나이 제한을 심하게 받는 50대 이상 인구만 해도 2016년 9월 기준, 인구의 35.7% 수준(1841만8655명)이다. 뽑는 이도, 뽑을 이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똑같은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 도대체 스스로를 향할지도 모를 이 칼날을 언제까지 무심하게 바라봐야만 하는 것일까.

주식시장은 경제·사회 흐름을 읽어 나가는 능력이 빠르기로 유명하다. 사안이 발생하기 이전에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그래서 주식은 기업의 미래를 반영한 가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사업의 비전을 내다보고 그 가치를 가능해 투자가 이뤄지는 합리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유독 정치 루머에 대한 이 합리성이 실종되는 듯하다. 최소한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의 인맥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그리고 권력층에 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됐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소위 '정치테마주'를 추종하고 있다.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남동생인 박지만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EG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5년 뒤인 2017년 1월의 모습은 어떤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

총장의 임국을 전후해 'new 반기문주', '반기문 사돈주' 등의 이름으로 증권가가 출렁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을 발표한 시점에는 '문재인 신대장주', '문재인현축주' 등이 증권가를 휩쓰는 모습이다. 우리는 권력층의 친인척 및 주변인 비리 청산을 외치면서도, 선진화했다는 자본시장에서는 이와 상충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거래된 '정치테마주' 16개 종목의 분석한 결과 10명 가운데 7명이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계좌당 평균 191만 원의 투자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한 고액투자자들의 경우 92.8%, 1억 원 이상 투자자들은 92.2%가 추가 하락으로 손해를 봤다. 이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투자자들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투데이 발행·편집인 김성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정치경제부 (02)799-2665 정책사회부 (02)799-2663 자본시장부 (02)799-2658
기업금융부 (02)799-2648 산업1부 (02)799-2684 산업2부 (02)799-2641
광고접수 광고문의 (02)799-2601 / 2802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99-2684
www.etoday.co.kr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부자의 그릇 "나는 평생 부자가 되지 못할 줄 알았다!" 25만 명의 삶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킨 최고의 부자수업, 『부자의 그릇』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자신의 그릇만큼만 담는다.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월급이 적어서? 재테크를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이런 기술적이거나 방법론적인 문제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질문을 바꿔보면 보다 근본적인 돈의 본질을 볼 수 있다. 부자가 되려 하기 이전에 돈을 다루는 능력, 즉,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 누군가 아무리 많은 돈과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는 것과 같다. 『부자의 그릇』(다산3.0)의 저자 이즈미 마사토는 일생을 돈의 교양과 본질을 전파하는 데 바쳐온 일본 최고의 경제금융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돈의 본질과 인간관계에 관한 명쾌한 통찰을 한 권에 담아냈다. 이 책은 그의 실제 사업 실패담을 바탕으로 집필한 교양 소설로, 한때 12억 연매출의 주먹밥 가게 오픈에서 3억 원의 빚을 지고 나라으로 떨어진 한 사업가가, 우연히 만난 부자 노인과 7시간 동안 나누는 돈과 인생의 비밀에 관한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빚을 댔던 돈을 버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들어보니 돈이 와서 담기는 것이더라"며 야망을 시작하는 부자는 부자의 1, 2단계, 즉 남을 위해 돈을 벌거나, 나를 위해 돈을 버는 단계를 뛰어넘어 3단계인 '남이 나를 위해 돈을 벌여주는 단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7시간 동안 나는 노년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선택, 경험, 신용, 리스크 등 부자들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그릇의 크기를 깨우치고,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도 이러한 '돈의 본질과 관점'에 대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문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

산하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듯이 호젓한 달빛에
숨이 마칠 지경...
메밀꽃 필 무렵 중에서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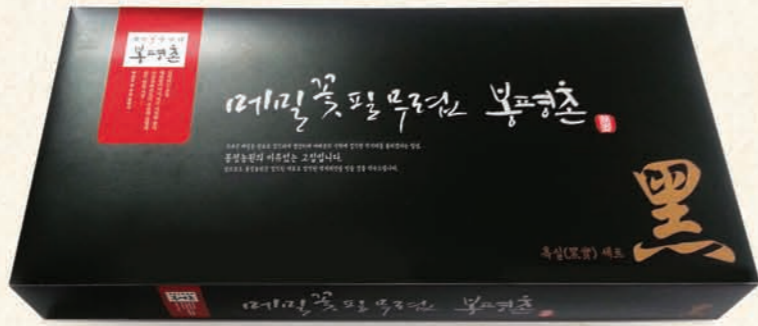
GIFT SET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봉평촌 선물세트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세요.
우리 땅에서 정성을 다해 재배한 우리 메밀에 건강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봉평촌 메밀선물세트(大)_흑실(黑實)세트



제품사이즈 : 661 mm X 326 mm X 83 mm
제품구성 : 메밀부침가루 800g, 찰수수부침가루 800g, 메밀가루 800g, 메밀쌀 600g, 메밀차 25개입 X 3개, 봉평촌메밀국수2호 850g X 2개

봉평촌 메밀선물세트(中)_백화(白花)세트



제품사이즈 : 470 mm X 315 mm X 74 mm
제품구성 : 메밀부침가루 800g, 찰수수부침가루 450g, 메밀차 25개입 X 3개, 봉평촌메밀국수2호 850g, 메밀소바 600g

봉평촌 메밀선물세트(小)_청엽(靑葉)세트



제품사이즈 : 485mm X 315mm X 50mm
제품구성 : 메밀부침가루 800g, 메밀미숫가루 900g, 봉평촌메밀국수2호 850g



‘재테크 초행길’이라면... 통장 나눠메고, 해외펀드 챙기세요

표준적인 포트폴리오 예시 (단위 : %)

상품명	내용	기대수익(연)	투자비중
미국주식형펀드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수익	8	20
뱅크론	미국 경기 회복 & 안정적 채권수익	5	15
ELS (지수형)	주요 증시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일정 수준이상 하락하지 않을 시 정해진 원리금 지급	4.2	30
정기예금	은행 저축은행(예금자 보호 범위내)	1.8	15
확정금리채권	우량 회사채 (만기 1년 이내)	2.5	20
계		평균 약 4.4	100

매년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보름 정도 지나면 '작심삼일'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호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올해 독자 여러분의 재테크 목표는 어떠한가요? 여유자금을 굴리는 중산층 이상의 자산가부터 이제 새로 취입해 목돈을 마련해 보려는 사회 초년생까지 재무 목표는 제각각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금융상품 중 연초에 신경써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7년 개정 세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시납 보험의 개인별 한도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월 적립식 보험은 5년 이상 납입 시 한도가 없었으나 매월 1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산가들은 개정 전 가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일시납 보험의 종류는 크게 저축보험, 즉시연금으로 분류됩니다. 매월 생활비로 연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즉시연금을, 10년 동안 굳이 현금 흐름이 필요 없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고자 한다면 저축보험(양로보험 포함)을 각각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즉시연금 중 종신형을 선택해 본인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구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가입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절세전략은 목돈을 굴릴 만한 자산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자산을 모아야 하는 분들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를 통한 절세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매년 20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5년간 납입하면 원금기준 총 1억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의 중

PB의 티타임

박진석
KEB하나은행 올림픽션수준PB센터 골드PB팀장



- 중산층 이상 자산가는 저축보험을 일시납·비과세 한도 대폭 줄어들어 내달 세법 개정 전 가입 서둘러야
- 사회 초년생은 ISA계좌로 절세를 200만원 비과세·해지 수수료 없어 예금·ELS 등 다양한 투자 가능해
- 목돈운용, 종류·지역별로 분산해야 유망국가 우량주에 '적립식 펀드'를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이익은 분리 과세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ISA는 장기상품임에도 중간에 해지한다면 정상적인 세금만 납부하면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해지가 됩니다. 또 ISA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ISA 내에 정기예금, ELS(주기연계증권), 일임형 투자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종합 백화점의 성격을 갖습니다.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이 눈여겨 볼만 합니다.

둘째, 투자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산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돈을 마련하는 경우 적립식 펀드로 운용하면 평균매입 단가가 낮춰지는 효과를 갖습니다. 국내에 제한하지 말고 유망한 글로벌 시장에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합니다. 목돈을 운용할 때에도 상품의 종류별, 지역별로 분산해서 투자하면 유리합니다.

아래에 표준적인 포트폴리오를 예시했습니다(목표수익률 세전 연 4.4%, 표 참조).

셋째, 한 번 세운 계획을 꼭 실천하는 실행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목돈을 굴릴 때보다 모을 때 중간에 포기하는 많은 사유가 발생합니다. 제테크 전문가들은 통장 쪼개기를 추천합니다. 자녀학자금, 주택마련자금, 결혼 10주년 기념 여행자금 등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통장으로 좀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저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본인의 저축, 투자를 점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개인이 하기 어렵다면 제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인터넷 카페나 서점의 제테크 책자를 구입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목표하는 재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해 연말 기쁜 마음으로 본인의 자산 현황표를 점검하길 바랍니다.

이철환의 돈 이야기

저신용자에겐 까마득...

은행밖 금리절벽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각종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대표적인 후유증의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문제도 그렇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도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대출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준금리도 사실 운용 목표치에 불과하며, 실제 자금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그런데 시중금리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서민들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공산이 크다.

이처럼 고금리로 인해 초래될 여러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금리의 상한규제를 두고 있다. 즉 현행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최고이자율은 25%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연 25%를 넘는 금리를 받을 경우 25% 초과 부분은 무효이다. 선이자자의 경우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간주하며, 복리에 의한 이자지급도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 법)'에서는 별도로 최고금리를 규제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법정최고이자율을 연 34.9%로 제한했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에 맞추는 한편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로 대폭 인하했다.

금리에 대한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시장에서의 금리 수준은 자금 수요자의 신용 상황 그리고 대출약정 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우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따른 차이이다. 고정금리는 최초 대출약정에 의하여 약정 기간 동안 기준금리가 아무리 큰 폭으로 변동되더라도 금리 변동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변동금리는 일정한 주기로 금리가 변동된다. 그래서 고정금리는 안정성이 있는 반면, 금리 수준은 변동금리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신용상태 따라 양극화 심화
저신용자 고금리 대출 악순환
경제활성화로 돈맥경화 풀어야

대출을 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출기간이 짧고 향후 금리가 내려간다고 전망되면 변동금리 상품이 유리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고정금리 상품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

다음은 자금 수요자의 신용 상태에 따른 금리 양극화 현상의 심화 문제이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소득과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찾는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소득과 신용, 담보가 부실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가 풀리지 않아 빚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들은 고금리지만 담보 없이도 대출을 해주고 있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한편, 돈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미국의 대대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의 환상은 여전히 유효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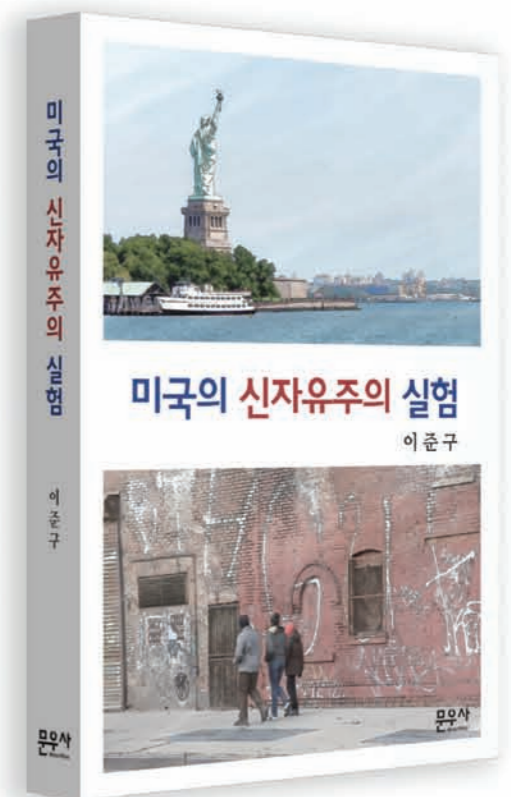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의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미국의 감세정책 실험은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는가?

한국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정책들의 배경에 도사리고 있는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의 분별없는 '미국 따라 하기'에 울리는 경종

정부는 약덕(vice)이며 시장은 미덕(virtue)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념의 광풍이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를 거세게 휩쓸고 지나갔다. 특히 지지부진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분출되어 나오는 곳일수록 신자유주의의 마력은 더욱 큰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시장에 모든 일을 내맡기는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음은 마치 진공상태처럼 모든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가공의 신념일 뿐이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함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환상은 어느 정도 깨져버린 상태가 되었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규제 철폐와 세금 감면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진실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다. 그러나 보수층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미련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한 예로 감세는 미덕이고 증세는 약덕이라는 단순하고 맹목적인 논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 책은 보수세력이 정치와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으면서 최상위 1%에 속하는 가진 자의 천국이 된 결코 답지 않아야 할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담고 있으며 성숙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준구 지음 | 288쪽 | 문우사 | 값 18,000원

문의: 031-901-6542



유병장수 걱정말라 전해라

생보·손보사 추천 보험상품

새해가 밝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보험업계가 신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경기침체로 지갑을 닫은 소비자들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상품을 저마다 내놓는 것이다. 생보사들은 변액보험에 초점을 맞춘 분위기다. 단순히 펀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보장 질병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일부를 생활자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등 상품 구성을 다양화한 게 특징이다. 이와 동시에 변액연금 상품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예정이율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다는 보험사들의 속내도 엿볼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유병자보험을 앞세운 건강보험에 대부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뇌졸중을 보장(현대대상)한다거나 3대 질병의 재발을 보장(동부화재)하는 상품이 이목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과 손해보험을 결합한 통합보험(삼성화재)도 선보여 선택의 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SAMSUNG 삼성생명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

활동기 사망보장, 은퇴 후엔 생활보장 월 15% 적립 '펀드 장기유지 보너스'도

삼성생명은 활동기엔 사망보장을, 은퇴 이후엔 생활비를 각각 보장하는 '생활자금 받는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을 작년년부터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생활자금 자동인출', '생활자금 보충지급', '보험료 추가납입 확대' 등의 기능을 추가해 기본적인 사망에 대한 보장은 물론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 마련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생활자금 자동인출은 가입시 고객이 은퇴 시점을 지정하면, 그 나이부터 최대 20년 동안 생활자금을 매년 자동으로 지급하는 기능이다. 실제 생활자금은 은퇴 시점부터 매년 주보험 가입금액의 4.5% 만큼을 자동으로 감액하고, 이때 발생하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생활자금 보충지급은 변액상품의 특성상 투자수익률의 악화에 대비해 은퇴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보충한다. 실제 은퇴 시점에서의 적립금이 이 상품의 적용이율(보험료 산출이율)인 2.5%로 부리한 예정적립금보다도 적은 경우는, 2.5%로 산출한 예정 적립금을 기초로 생활자금을 최대 20년 동안 보충 지급한다.



아울러 가입 이후 추가 납입의 한도를 기존 기본보험료의 1배에서 2배로 확대했다. 10년 이상 장기 유지시 펀드 운용수수료의 15%를 매월 적립금에 가산해주는 '펀드 장기유지 보너스'도 새롭게 도입했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65세까지다. 가입 시 선택하는 은퇴 시점은 55세부터 80세까지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종신보험 고유의 사망보장에 대한 고객보장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도, 고객 본인은 물론 가족의 노후생활비, 질병 의료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기능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한화생명 변액유니버설 GI보험

7대 중병 보험료 변동 없이 평생 보장 뇌출혈·급성심근경색 GI로 조건 완화

한화생명은 올해 새해 첫 신상품으로 7대 질병 중등도와 관계없이 보장하는 '변액유니버설 GI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주요 성인질환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폐질환, 말기간질환, 말기신부전증, LTC 등 7대 질병을 보험료 변동 없이 평생 보장한다. 특히 발병률이 높고 고객 니즈가 큰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은 기존 CI(Critical Illness)에서 GI(General Illness)로 조건을 완화했다. 7대 질병 진단 시 보험가입 금액의 일정비율(50%, 80% 중 택1)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사망시에는 잔여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7대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고객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7대질병보장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7개 각각 질병의 진단자금을 1회씩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다. 한화생명은 중대한 질병 및 수술보장에 대한 니즈가 강한 고객이라면 '중대한치료비보장특약'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5대 장기이식 수술,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 관치환술, 심장판막수술, 루게릭병, 중



중재생불량성빈혈, 중대한 화상 및 부식 등 CI보험에서 보장하는 다수의 질병과 수술을 이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암추가보장특약(3년 갱신)'에 가입하면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에 대해 10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 팀장은 "변액유니버설GI보험은 새해를 맞아 선보인 첫 상품으로, 큰 질병에 대한 진단자금 니즈가 강한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KYOBO 교보생명 교보프리미어 CI보험

루게릭·다발경화증 4가지 질환 추가 CI 연관성 중증 9종 최대 1000만원

교보생명은 최근 보장은 늘리면서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는 낮춘 '교보프리미어CI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사망 보장은 물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중대한 질병(CI)과 중증치매 등 장기간병(LTC) 상태를 평생 보장한다. 특히 기존 상품보다 주계약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CI와 연관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 추가 보장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중증세균성수막염,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등 4가지 질환을 새롭게 CI에 추가했다. 기존 CI보험의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는 소액보장도 확대했다. 뇌출혈, 뇌경색처럼 CI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의 질환이나 CI와 연관성이 높은 중증질환 9종도 질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CI발생 시 선지급률도 80%(기본형)와 100%(보장 강화형)로 확대했다. 보장 강화형의 경우 100% 선지급 후 사망 시에는 가입금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오히려 큰 폭으로 내렸다.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을 미리 확정된



예정이율로 보증해주지 않는 대신 공시이율로 적립해 보험료를 10~20%가량 낮췄다. 해지환급금이 기존 방식보다 다소 적어질 수 있지만 생명보험 본연의 기능인 보장 혜택에 초점을 맞춰 저렴한 보험료로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운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 팀장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큰 질병에 대한 보장 니즈가 높아 CI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보험료가 비싸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NH농협생명 생활비 받는 NH암보험

암 진단·완치까지 월 100만원 지급... 사망시 5000만원

NH농협생명은 출범 5주년을 맞은 올해 첫 신상품으로 '생활비받는NH암보험(갱신형·무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암 진단 후 완치까지 경제적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큰 고객 니즈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암 진단 후 생존 시 매월 100만 원의 암안지를 위한 생활자금을 최대 5년간 지급하는 상품이다. 또한 '유방암이나 남녀생식기관련암' 진단 시 1500만 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과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 진단 시엔 최초 1회에 한해 400만 원의 진단보험금을 제공한다. 암 진단 후 사망 시에는 5000만 원의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60세까지다. 15년 단위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월 보



험료는 여자 40세 기준으로 1종 순수보장형 가입시 2만400원이다. 15년 만기 시 건강관리자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건강관리형은 3만1400원이다. 남자 기준으로 는 각 2만6000원, 3만6600원이다. 또한 특약 가입을 통해 암 진단·입원·수술 및 통원 등의 통합보장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한 서기봉 대표가 이 상품 1호 고객으로 가입했다. 아울러 농협생명은 보험료 부담을 낮춘 '다일전NH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무배당)' 신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지 환급금을 줄여 일반 종신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서기봉 대표는 "자산 60조 원을 넘어선 NH농협생명의 대표라는 중책을 맡아 올리는 전 임직원이 도전정신으로 뭉쳐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며 "무엇보다 고객중심의 경쟁력 높은 보장성 상품과 영업력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ING ING생명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

고객 설정 나이부터 20년간 생활비로... 연금 전환 가능

ING생명은 사망보장은 물론 가족생활비도 보장해주는 '무배당 생활비 챙겨주는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을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이 설정한 생활자금 게시 나이 이후 최대 20년 동안 매년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능을 갖췄다는 점이다. 주보험 가입 금액이 4.5%씩 최대 20년 동안 균등하게 감액되며, 이때 감액된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적립금을 생활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20년 동안 생활비를 모두 받아도 주보험가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사망 보장은 지속된다. 또한 소득보장형(2종)을 선택하면 은퇴나 이 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 월급여금으로 가족생활비를 보장하는 것도 특징이다. 월급여금은 '1% 지급형(보험가입금액의 1%), 2%지급형(보험가입금액의 2%)'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아울러 변액투자를 통한 인플레이 헤지가 가능해 투자수익에 따라 더 많은 생

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총 16종의 펀드가 제공되며 최대 60%까지 주식형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5년 이상 납입 시 기간에 따라 1~2%에 해당하는 장기납입 보너스가 지급된다. 가입 10년 이후에는 펀드 수수료 환급을 통해 계약자 적립금을 더 키워나갈 수 있다. 이밖에도 필요에 따라 목적자금을 위한 적립형이나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노동국 ING생명 상무(상품부)는 "재테크 내놓는 상품은 보험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가입자 유교 시 남아있는 가족을 위한 보장이다. 나를 위한 보장을 더한 보험으로 한 단계 더 진화된 종신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SAMSUNG 삼성화재 모두모아 건강하게

건강·손해보험 통합... 한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보장

삼성화재가 건강보험과 손해보험 기능을 접목한 통합보험 '모두모아 건강하게'를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사망, 장애, 진단비, 수술비, 실손 의료비 등 건강보험과 손해보험 고유의 담보인 운전자 비용, 화재 위험, 배상 책임까지 보장하는 통합보험이다.

이 상품의 특징은 사망·장애·진단비 등을 한 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보장해 준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집중적인 보장을 원하는 고객은 60·65세 만기 담보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15년 동안 보험료 인상 없이 계약 유지도 가능하다. 15년 후에는 고객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보장내역 재검정 등을 통해 재가입하거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재무설



계가 가능하다.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또는 질병 고도장애(1, 2급) 발생 시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기능도 추가됐다.

보험기간 중 최초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새로운 암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암이 전이 재발 잔존한 경우

에는 재진단 시마다 최대 2000만 원의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입원 수술 시 20만 원, 통원 수술 시 10만 원을 보상받는다.

저축성 보험으로 계약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객이 납입기간 동안 쌓은 적립금을 저축성 보험으로 전환해 만기 또는 해지 시 매년 또는 매월 분할 수령할 수 있다.

장례용품 서비스, 홈케어·카케어 서비스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적인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정병록 상무는 "다양한 보장과 혜택을 담아서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현대해상 간단하고 편리한 건강보험

업계 첫 뇌졸중 보장... 재발하면 재활 프로그램 제공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뇌졸중을 보장하고, 건강 회복 시 보험료를 낮춰 주는 간편심사 보험 '간단하고 편리한 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간편심사를 통해 뇌졸중을 보장 받을 수 있고, 후유증이 남고 재발률이 높은 뇌졸중의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 프로그램은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의 방문 재활지원, '라파엘 스마트 클러브' 등의 재활 훈련용 헬스케어 기기를 대여해주는 스마트 재활지원, 이송차량 지원의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또한 유병자 상태로 보험에 가입했다 라도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이 회복했다면 첫 번째 계약 갱신 시점에 재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표준제(건강한



사람)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거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이 외에도 업계 최초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를 보장한다. 유병자·고령자에

게 적합한 '메디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점도 특징이다. 이 서비스는 전문의 료진 건강상담, 병원 진료예약 대행, 전담간호사 방문, 24시간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해 고객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이 상품은 기존 50세부터 가입할 수 있었던 점을 보완해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5년, 10년 주기의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60세 남자, 상해 1급, 10년만기 전기납 기준으로 8만 원 수준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을 통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보장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동부화재 참좋은 가족건강보험

암·뇌·심장 등 3대 질병 재발 특약 고령자·유병자도 간편고지로 가입

동부화재는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거나 고령인 고객들을 위해 3대질병(암, 뇌, 심장) 재발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간편고지 보험에 3대 질병의 재발을 보장해주는 특약을 최초로 도입한 것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특히, 동부화재 참좋은 가족건강보험은 고객의 건강상태에 따라 우량 가입자, 비흡연 가입자, 일반 가입자 및 간편고지 가입자로 구분해 건강상태가 우량하거나 비흡연 시 해당 담보에 일반 가입자 대비 최대 30% 수준 할인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고령자·유병자 등 일반상품으로 보험가입이 힘든 보험소의 계층은 간편고지보험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개발된 상품이다.

건강한 고객부터 고령층,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세분화된 플랜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보장내용 또한 기존 상품 대비 강화됐다.

첫 번째 발생한 암 이후 재발하거나 전이된 암까지 보장해주는 재진단암진단비를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해준다.



또한 두 번째 발생하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보장해 주는 '두번째 뇌출혈진단비',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일반가입자플랜', '비흡연가입자플랜', '우량가입자플랜' 물론 '간편고지가입자플랜'에 추가해 중요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동부화재는 이 상품을 비롯 자동차 보험 관련 배타적사용권도 획득한 적 있다. 동부화재는 T맵 네비게이션을 켜고 일정 거리를 주행 한 후 부여되는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받는 smart-UBI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도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 받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KB손해보험 The드림 365건강보험

질병·상해 심도따라 수술비 등 보장 20년간 보험료 인상 없이 계약유지

KB손해보험이 질병 심도에 따라 보장을 차별화한 'KB The드림365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질병, 상해 등이 모두 보장되는 종합건강보험이다. 갱신주기를 20년으로 확대했고, 질병의 심도가 반영된 담보를 탑재해 질병 상태에 따라 합리적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또 우선 보장 기간에서 다른 상품들과 차별된다. 최대 2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20년 동안 보험료 인상 없이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20년 후에는 갱신을 통해 최대 11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종합건강보험 상품답게 다양한 담보를 갖춰 폭넓은 보장을 제공한다. 특히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고객의 간병비 및 소득대체 자금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업계 최초로 질병의 심도를 반영한 수술비와 단계별 질병진단비 등의 담보를 탑재했다.

새롭게 개발된 수술비 담보는 생활 질병수술비부터 신특정질병수술비, 5대기관수술비까지 3단계의 담보로 구성됐다. 단계별 질병진단비 역시 질병의 상태에 따라 보장이 이뤄지도록 심



도를 반영했다.

해당 질병으로 단계별 질병진단비를 받게 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후유장애나 장애에 따른 진단비 등과 함께 가입한다면 등급에 따라 최대 3억여 원까지 지급해 질병 이후 생계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기간 중 상해나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경제능력 상실 이후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덜도록 납입면제 기능을 갖췄다. 가입은 0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다.

이 상품은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함에 따라 업계에서 유사 상품을 그 기간동안 개발할 수 없게 됐다. 박규준 기자 abc84@

MERITZ 메리츠화재 (주)The알뜰한 건강보험1607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기본계약 해지환급금 줄이는 대신 보험료 낮춰

메리츠화재는 기존 건강보험 상품보다 최대 20% 수준까지 보험료가 저렴한 (주) 메리츠 The알뜰한건강보험 1607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보장을 기본계약으로 하며, 기본계약 중에서도 고객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3대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50% 이상 후유장애 시 향후 납입할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운영한다. 가입 나이는 0세부터 65세까지이며 만기는 100세까지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 50% 지급형,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표준형을 선택할 수 있다. 표준형 대비 해지환급금 50% 지급형은 8~10%,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19~2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기존 상품과 동일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설계사와 보험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넓히



겠다고 밝힌 이후 출시하는 첫 번째 상품"이라며 "장기적인 저금리로 보험료 인상이 계속되며 고객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생보사에서 진단비 보장(암진단비 등)에 국한해 무제한 환급 상품을 출시한 사례가 있었으나, 8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갱신형으로 운영하는 등 고객들이 가입하기에 제약조건이 많았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업비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이런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 더보장보험

일상생활 위험보장... 골절진단·집스치료비 등 구성

한화손해보험은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을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보장상품인 '무배당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보장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골절진단비, 골절집스치료비, 골절부목치료비를 기본담보(노아파절 제외)로 구성했다.

이 상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 전손 발생 시, 가입당 차량가액과의 차액을 보상에 주는 등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골절치료비의 경우 이전의 보장상품들과 달리 업계최초 골절부목 치료비까지 보상을 확대했다. 이로써 골절치료비 보장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또한 가족 중 의료사고로 소송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가족의료사고 법률



비용도 보장한다. 노후된 배관으로 인한 누수 시 보상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상 등 다양한 일상 속 위험에 대한 보장경쟁력도 키웠다.

아울러 본인과 가족의 기호에 맞춘 라이프스타일별 맞춤 패키지'를 도입해 생활 속 위험보장, 상해위험보장, 레저

활동과 운전 중 위험보장, 우리집 화재·자연재해 위험보장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간편 가입 기능을 탑재했다.

보험료환급 및 지원 특약을 활용해 더 강력해진 납입면제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최저 만 15세부터 보험나이는 70세까지다. 납입기간은 전기납, 보험기간은 3, 5, 10, 15, 20년 단위로 설계할 수 있다.

이명균 한화손보 상품전략파트장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생활위험과 이로 인해 증가하는 손해비용으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보호받고 가족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라며 "보험료 환급·지원 특약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안정까지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Hyundai Life 현대라이프생명 ZERO 상해보험

50% 재해장해시 보험료 면제... 10년간 재활자금 지급

현대라이프생명이 사고로 인한 장애와 사망에 모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인 '현대라이프 ZERO 상해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재해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고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장해준다. 또한 일상에서 발생하는 골절이나 집스치료, 응급실 치료까지 보장해 가입자들은 크고 작은 의료비에 대비할 수 있다.

'현대라이프 ZERO 상해보험'은 중대 사고로 인한 50% 이상 재해장해 시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또한 실업이나 소득공백을 고려해 10년 동안 재활자금도 지급된다. 여성이라면 강력범죄 발생 시 피해위로금과 외모 특성상해로 인한 수술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35세 남성이 20년 보장, 20년 납입,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기준으로 가입할 경우 월 1만2000원이다.

현대라이프의 대표상품인 '현대라이프 ZERO'는 소중한 나를 위한 보험으로 2017년 트렌드로 떠오르는 나홀로족

을 공략하고 있다. 무엇보다 나의 건강과 안전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이다. 상품군은 암보험, 성인병보험, 상해보험, 얼굴건강보험, 양·한방건강보험 등이 있다. 군더더기 특약 없이 꼭 필요한 핵심 보장만 집중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장기간 중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도 없다. '현대라이프 ZERO'상품은 현대라이프의 FP(재무설계사)에게 문의하거나, 현대라이프 ZERO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ZERO상담센터 전화(1544-2900)를 통해서도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박규준 기자 abc84@



삼성전자 사상 최대 현금배당 이재용 부회장 231억 받는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배당을 발표하면서 이근희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돌아가는 배당금도 1903억 원에 달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2만7500원, 우선주 1주당 2만75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3조8504억 원이다.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확정되면 이근희 회장의 배당금은 이날 기준으로 보통주 1371억 원(3.54%), 우선주 3억4156만 원(0.06%)에 달한다.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0.77%(108만3072주)를 보유하고 있어 297억8448만 원을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배당금도 231억1108만 원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주가보다 정직”... 상장사들의 ‘양심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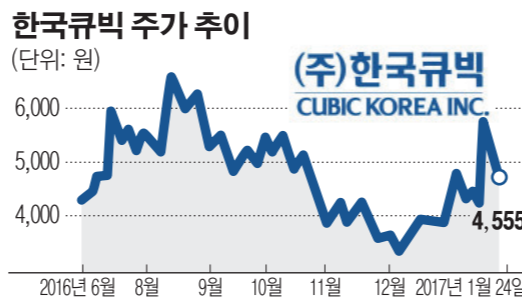
한국큐빅, VR·AR 수혜 전망에 주가 급등하자 “연관성 없다” 해명공시
태원물산도 신공항부지 보유 주장 일축... 투명경영 통한 신뢰 확보 노력

주식시장에 반연한 테마(투머)에 대해 상장기업들의 ‘양심선언’이 이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주가 상승보다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과 시장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증권시장에 따르면 한국큐빅은 지난 16일 하루 동안 주가가 29.86%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한 주간 주가상승률은 22.27%에 달한다.

유명 증권 사이트에서는 한국큐빅이 홀로그래프 수압전자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가상현실(VR) 테마주’로 수혜가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가 요동을 치자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해당 특허는 VR·증강현실(AR)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태원물산 주가도 지난 17일 가격제한폭(30.00%)까지 치솟았다. 통합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된 성주군 용암면 부지를 대규모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태원물산 측은 “울산과 인천 등 공장 부지를 제외한 부동산 보유 사실이 없다”며 신공항 관련 부지 보유 주장을 일축했다.

관계기관은 기업들의 잇따른 양심선언에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한국큐빅의 해명공시는 루머를 공시로 해명한 첫 사례”라며 “양심공시 선언 기업들에 대한 혜택 방안을 강구해 이 같은 풍토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정치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사이버 테마와 결부돼 주가 및 거래량이 이상급등하는 경우 사이버 얼럿(Alert·경보시스템)을 발동해 투자주의 종속으로 경고 조치하고 있다. 양심선언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도 해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테마주로 주가가 올랐어도 단기추종세력에 의해 짧은 시간 내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이제는 주가 상승보다 투명경영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와 신뢰 확보가 중요한 시대”라며 “테마주에 연루되는 것은 선입견 양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 39건... 2년째 최다 더욱 은밀해진 불공정거래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한미약품 등 미공개 정보 이용 ‘활개’... 대응책 필요 시세조종 34건, 부정거래 16건 뒤이어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검찰로 넘긴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유형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불공정거래 유형 1위를 차지하던 ‘시세조종’은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뒤로 밀렸다. 금융당국의 조사 기법이 발전하고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지만 더불어 불공정거래 양태도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금감원은 지난해 172건의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를 마치고 104건을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넘긴 사건 중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종(34건), 부정거래(16건) 순이었다.

◇금감원 조사 기법 진화에 꼭꼭 숨는 불공정거래 = 2014년부터 추이를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시세조종 사건은 줄고 있다.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조사 관계자는 “예전보다 증시 참여자가 늘고 수준이 높아진 것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조사기법도 심 수년간 누적되고 진화하면서 웬만한 시세조종 수법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5년 금융당국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공조해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면서 이른바 ‘작전세력’들이 상당수 휴식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실형을 받아도 대부분 형기가 짧아 시세조종 세력 중에는 재범자가 많다”며 “주요 작전 투자자들이 구속돼 소강 상태인 측면도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증시가 2100선에 미치지 못하는 등 박스권에서 움직인 점도 시세조종 세력이 기를 펴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미공개정보

검찰고발·통보 사건의 위반유형

(단위: 건) *출처: 금융감독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부정거래	23	11	16
시세조종	49	27	34
미공개정보이용	36	34	39
지분보고 위반 등	27	17	15
합계	135	89	104

* 동일 건에 조치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조치로 분류하고, 위반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대량보유 등 보고위반 순서로 분류

이용과 허위 사실을 이용한 부정거래 등으로 불공정거래 양태가 더욱 악성·은밀화될 전망이다.

◇아직도 죄의식 없는 미공개정보 이용... 대응책 필요 = 지난해 시장을 흔든 대형 불공정거래 사건은 단연 미공개정보 이용 유형들이었다. 작년 초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사건부터 한미약품의 농장공시, 대우건설 ‘의견거절’ 발표 전 공모대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연루됐다. 연예인이 자신의 소속사 호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취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이상 매매 데이터 감시와 심리를 진행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금감원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검찰에 사건들을 통보했다. 이에 금감원에서만 대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23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8건, 인수·합병(M&A) 등을 자문하는 준내부자 9건이 적발돼 검찰로 이첩됐다. 자조단과 검찰에 직접 통보된 사건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 관측이다.

업계 전문가는 “최고위 경영진부터 미공개정보 이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처럼 미공개정보 이용 전역자의 상장회사 취임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6-02932호 (2016.06.03~2017.06.02)

KYOBO 교보증권

교보증권 체크카드와 함께하는 건전한 소비습관의 시작

SSG.COM LOTTE.COM

모두모아 체크카드

혜택의 크기가 다른! 부자되세요 더마일리지 체크카드

전 가맹점 0.5% 캐시백? 모두모아 체크카드

부자되세요 더마일리지 체크카드 서비스

- 마일리지**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최대 1천원당 1마일)
- 온라인몰** 온라인몰 5% 할인(SSG, 롯데닷컴, 엘롯데, AK몰, 갤러리아)
- 외식** 점심 11시~14시 음식점 10% 청구할인
- 커피**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10% 청구 할인
-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10% 청구 할인
- 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10% 청구 할인
- 통신요금** SKT, KT, LGU+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 스포츠** 프로야구, 축구, 농구, 배구 예매 20% 할인

※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적용
※ 상세 서비스 내용 및 할인 기준, 한도 등 교보증권 홈페이지 참조

모두모아 체크카드 서비스

- 캐시백** 전 가맹점 0.5% 캐시백(이용한도 내 적용)
- ※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 적용
- ※ 상세 서비스 내용 및 할인 기준 등 교보증권 홈페이지 참조

공통 혜택

- CMA 금융서비스 혜택** CMA 계좌 내 잔고를 RP에 자동투자하여 수익 제공
- 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보다 30%의 소득공제 혜택

서비스 제공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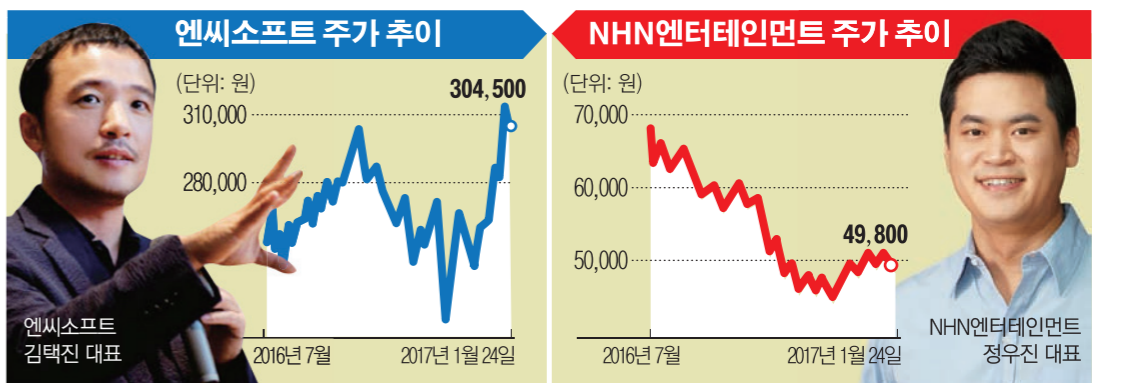
- 전월 실적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내 가맹점에서의 이용금액을 의미하며 전월 실적 산정 시 5개 온라인몰(SSG닷컴, 롯데닷컴, 엘롯데, AK몰, 갤러리아몰), 제세공과금, 상품권 구매액은 제외됩니다.
- 모든 서비스는 비씨카드에 등록된 가맹점 기준을 따릅니다.
- 카드 수령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는 카드이용실적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됩니다.

[마일리지 적립 기준]

- 마일리지 적립은 국내 가맹점 이용액 기준으로 한시 적용되며 적립 기준액(3천원, 1천원)으로 반올림 처리됩니다.
- 이용금액 중 제세공과금, 상품권, 대학등록금은 마일리지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와 관련한 상세 서비스 내용 및 공제 기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44-0900 | 카드문의 1566-2224 | 홈페이지 www.iprovest.com

※ CMA입금액은 RP에 투자되며, RP는 예금보험공사에 보호되지 않으며, 원금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 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 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체크카드 관련 상세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www.iprovest.com)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엔씨소프트, 리니지2 레볼루션 흥행에 ‘휘황’ NHN엔터는 게임 부진·신사업 경계감 ‘휘청’



증시 게임업종 라이벌 기업인 엔씨소프트와 NHN엔터테인먼트가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리니지2 레볼루션 흥행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신사업 진출에 의욕적인 NHN엔터테인먼트는 ‘본업’인 게임 부문의 부진으로 하락세다.

24일 증가 기준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30만4500원이다. 올 들어서면서 23.78% 올랐다. 최근 1년 중 저점이었다던 지난해 6월 17일(21만8500원)과 비교하면 무려 42.96%의 수익률이다. 시가총액 6조6664억 원에 달하는 엔씨소프트의 당치를 고려하면 상승세가 가파르다.

엔씨소프트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넷마블이 엔씨소프트의 PC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지식재산권(IP)을 빌려 개발한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이 대흥행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엔씨소프트가 로열티로만 250억 원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 중인 신작 리니지M의 흥행 기대감이 더해지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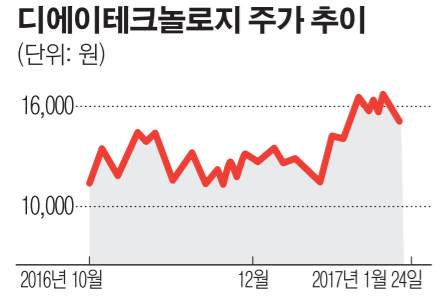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다. 김한경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플랫폼 게임(MMORPG) 장르의 수명이 긴 편인데다 리니지2 레볼루션의 1인당 게임 사용 지출액과 이용자 수 모두 경쟁 게임들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연간 일평균 매출 25억 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가정 시 레볼루션의 엔씨소프트 연간 영업이익 기여분은 913억 원”이라고 말했다.

반면 NHN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몇 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의 현재 주가는 4만9800원으로 연초(5만100원) 대비 0.60% 떨어졌다. 최근 1년 중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해 7월 22일의 6만9500원과 비교하면 반 년 만에 28.42%나 빠졌다.

이는 ‘본업’인 게임부문의 부진과 함께 신사업 투자에 대한 경계감이 겹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NHN엔터는 2015년 8월 페이코를 출시한 뒤 주력 사업 포트폴리오를 PC·온라인·모바일 게임에서 전자상거래로 넓히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실제 지난 8월 한 국책도널드가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내는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은 냉담하다. 유충현 기자 lamuzi@



중전기차 혼풍...디에이테크놀로지 올해도 탄탄대로



작년 3분기 매출액 573억...4분기 설비수주액만 404억 전망 2차전지 제조 6년째 사상 최대 매출...중정척 수혜 본격적 성장

2차전지 제조설비 기업 디에이테크놀로지가 6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지난해 매출액은 역대 최대치로 집계된다. 디에이테크놀로지가 공시한 3분기까지 실적은 매출액 573억 원, 영업이익 24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7%, 26% 증가했고, 4분기 실적 또한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4분기 내 설비 수주액이 총 404억 원으로 2015년 매출액

대비 60% 수준에 이른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지난해 'Shaanxi Defei New Energy Technology Group Co., Ltd'와 195억 원(최근 매출액 대비 32.35%), 'eTrust Power Group Ltd.'에 209억 원(최근 매출액 대비 34.7%) 등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부터 404억 원 규모의 공급이 이뤄져 2017년도 실적에 반영되면 6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2012년부터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매출액은 2013년 289억 원, 2014년 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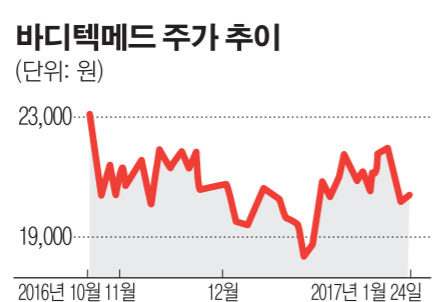
억 원, 2015년 605억 원 등이며, 2016년 3분기에 전년 실적에 육박하는 578억 원 을 기록했다. 최근 세계적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확대와 중국의 전기차 산업 성장에 따라 올해 실적도 2016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는 10년 안에 전기자의 연간 판매량이 300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배터리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지금의 시장 체계로는 배터리팩 부족 사태가 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이 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전기차 시장 전망은 다른 산업에 비해 밝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보고서

에 따르면 2015년 말 총 126만 대로 글로벌 전기차 누적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어섰다. 또 '전기차 및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선언'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보급을 1억 대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세계 자동차산업 구조를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후 적극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지원 중이다. 이와 함께 2차전지 산업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실적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조설비 수주산업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영향 또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바디텍메드, 갑상선호르몬 측정기 美 FDA 인허가 신청

갑상선 호르몬 농도 즉각 진단 손가락 채혈·분석 美 최초 제품

병원용 현장진단 전문기업 바디텍메드는 아피아스(AFIAS) TSH를 미국 FDA에 인허가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바디텍메드의 아피아스 TSH는 갑상선 기능 검사를 위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농도 측정 장비로서 의료 현장에서 갑상선 기능의 저하(갑상선 기능 저하증)나 과다(갑상선 기능 항진증) 여부를 간단하고 즉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검사 시료로써 혈장이나 혈청뿐만 아니라 전혈과 손끝혈을 사용할 수 있다. 손끝혈을 위해선 손가락에서 직접 채혈과 분석이 가능한 c-tip(바디텍메드의 특허제품)이 적용된 미국 최초의 전혈 제



2700만 명 이상이 앓고 있으며, 해마다 수백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 주요 질환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빈번히 측정되는 내분비 계통 검사 항목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피로와 증상이 매우 유사하며, 대형 병원 중앙 검사소의 대형 장비를 이용한 검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진의 불편함 등의 이유로 약 절반 정도의 환자는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 측은 "미국 내에서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기존 대형 의료기관의 검사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저희사 이무노스틱스의 판매망과 마케팅 노하우는 성공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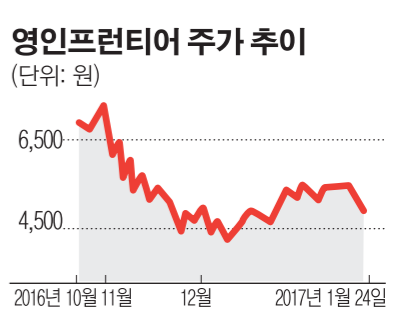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경구용 콜레라 백신 제조업체인 유바이오로직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최규준 한국IR협의회 부회장,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백영옥 유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배영규 한국투자증권 본부장, 김원식 코스닥협회 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

토종 콜레라 백신 글로벌 진출 '유바이오로직스' 코스닥 입성

자체개발 '유비콜' WHO 승인 작년 유니세프와 210억원 계약 2019년 美시장 백신 등록 목표 5000만달러 신약심사권 획득

감염병 예방백신 개발 바이오 벤처기업 유바이오로직스가 24일 코스닥에 입성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말 공모시장의 침체 분위기 속에 적절한 기업가치를 평가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장을 미룬 바 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경구용 콜레라 백신 '유비콜'은 세계에서 3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성 평가(PQ)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공인된 백신이다. 지난해 5월 유니세프와 2016-2018년까지 3년간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해 최소 1030만 도스(약 210억 원 이상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10월부터 125만 도스를 공급했으며, 지금까지 약 300만 도스가 국가검정을 거쳐 수출 대기 중이다. 이에 따라 유니세프와 체결한 콜레라백신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비콜에 이어 연초에 플라스틱 제형의 '유비콜-플러스' 품목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으며, 마이알 제형에 비해 제조원가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공공백신으로서 보관과 수송, 투여 편리성을 제공하는 대규모 방역사업의 맞춤형 제품으로 알려

져 있다. 유비콜은 공공시장 외 콜레라가 빈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개별 국가 등록을 통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파키스탄 등은 이미 등록 최종 단계로 올해 매출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또 콜레라 상재국가를 여행하는 선진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유럽 및 미국 등록을 준비하는 중이다. 유럽시장은 이미 여행자 백신으로 시판되는 프랑스 발네바사의 '듀코랄'이 약 1000억 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바이오로직스의 '유비콜'은 현재 유럽 및 미국 등록에 필요한 임상시험을 협의 중이다. 2019년 초를 목표로 미국에 콜레라 백신의 등록을 성공하면 국내 개발 백신으로 미국 최초로 진출해 최소 2억5000만 달러(약 2980억 원) 가치의 신약허가우선심사권(PR) 획득이 이루어진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유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벤처와는 달리, 동물세포와 미생물 배양 기반의 바이오 의약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업생산이 가능한 선진 우수식품·의약품의 제조·관리의 기준(GMP)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자체 콜레라백신의 개발 및 상업화를 진행해 왔으며, 2012년 이후 국내 6개사 7개 프로젝트에 대한 위탁 생산(CRM)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약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김우람 기자 h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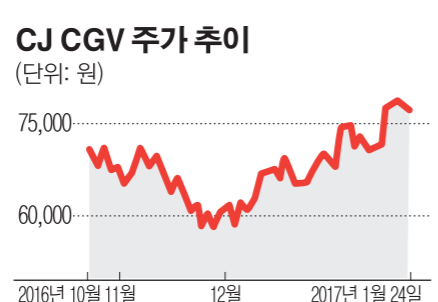
영인프린터 잘나가네 작년 영업이익 72% '썩음' 11억 기록...2년 연속 성장세

과학기술자재 및 치료용 합체 기업 영인프린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년 연속 크게 증가했다. 영인프린터는 지난해 매출액이 약 2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 영업이익은 11억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4억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영인프린터는 "지난 2015년 당기순이익에는 소송충담급환입액이 약 6억17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약 89억 원, 영업이익은 6억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4.9%, 171.7% 증가했다. 4분기 당기순이익은 4억8100만 원으로 3분기 대비 33.3% 감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2016년에도 과학기기 및 바이오 양대 사업 부문의 실적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학기술기 사업부문의 생명공학 제품 라인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매출이 늘었음 뿐만 아니라, 바이오 사업부문의 연구용 합체, ELISA kit, Custom Service 등 주력 제품 및 서비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LIMS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매출 성장세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CJ CGV, 美 2호점 오픈...“K무비, 영화본토 본격공략”

'CGV 부에나파크' 8개관 1187석 4DX·스크린X·프리미엄관 등 운영

CJ CGV가 영화 본고장인 미국에 새로운 걸쳐플렉스를 선보인다. CJ CGV는 오는 27일 미국 2호점 CGV 부에나파크(Buena Park)를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오픈한 미국 1호점 CGV LA 이후 7년 만이다. CGV 부에나파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남동쪽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시에 신축되는 쇼핑몰 더 소스(The Source OC) 3층에 위치한다. 8개관, 1187석 규모다. CJ CGV는 부에나파크에 최신 기술을 탑재한 4DX, 세계 최초 미래형 다면 상영관 스크린X를 지역 내 최초로 운



사화도 준비했다. LA와 뉴욕에 설치된 4DX가 큰 인기를 얻었던 만큼 4DX 열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네마론에서 선보여 주목 받은 스크린X(252석) 설치에 미국 내 확장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다. 오픈과 동시에 '빅뱅 메이드', '부산행', '모자: 더 로스트 레전드' 등 국내외에서 화제를 모았던 스크린X 콘텐트를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서정 CJ CGV 대표는 "CGV부에나파크는 디자인, 서비스, 운영, 특별관 등 모든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CGV만의 노하우를 담아 자신 있게 선보이는 극장"이라며 "전 세계 영화산업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K무비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대원미디어 '원피스' 테마카페 인기...프랜차이즈 나오나

개점 한달 하루평균 1000명 방문 연내 2·3호점...캐릭터 카페 확대

콘텐츠 라이선싱 전문기업 대원미디어가 지난해 문을 연 원피스 테마카페가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발돋움했다. 대원미디어는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홍대 지역에 개점한 '원피스' 테마카페 'Cafe de ONE PIECE'의 개점 이후 1개월간 일평균 약 1000명이 방문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은 방문자의 소비력에서 여타 캐릭터숍 등과 차이를 보일 정도로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여러 백화점과 쇼핑몰 등 유통업체로부터 점포입점 및 프랜차이즈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원미디어는 적극적으로 캐릭터 카페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연내 2·3호점과

프랜차이즈 점포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Cafe de ONE PIECE'는 일본의 인기 만화인 에니메이션 원피스를 테마로 한 캐릭터 카페다. 원작인 원피스 작품을 테마로 한 다양한 카페 메뉴와 한정상품을 포함한 각종 원피스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대원미디어는 올해 원피스 카페의 성과와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 성과가 더해져 원피스 사업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잊고 있어도 언제나 봄은 다시 찾아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기분 좋은 소식들로
따뜻한 2017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